

남양주시 취약계층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24. 12.



남양주시복지재단

본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남양주시 취약계층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연구책임자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공동연구진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이혜연 (대경대학교)

이 보고서에 제시된 면접참여자의 인용문은 이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 하에 면접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제시된 인용문에 대한 2차 활용은 불가함을 고지합니다.

목 차

I. 서론	2
1. 연구목적	2
2. 연구방법	2
II. 취약청년별 국내 지원정책현황	8
1.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9
2.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13
3. 고립은둔청년 지원정책	16
III. 취약청년별 복지실태 및 요구분석	20
1. 가족돌봄청년 복지실태 및 요구분석	20
2. 자립준비청년 복지실태 및 요구분석	36
3. 고립은둔청년 복지실태 및 요구분석	49
IV. 취약청년별 심층면접 분석	64
1. 가족돌봄청년 심층면접 분석	64
2. 자립준비청년 심층면접 분석	77
3. 고립은둔청년 심층면접 분석	86
V. 취약청년 정책지원방안	95
1. 집단별 취약성	95
2. 정책지원방안	100
참고문헌	114
부록	115

표 차례

<표 I-1> 심층면접 대상자	5
<표 II-1> 취약청년 대상 중앙정부 대표 지원정책	9
<표 IV-1> 가족돌봄청년 심층면접 참가자 일반적 특성	64
<표 IV-2> 자립준비청년 심층면접 참가자 일반적 특성	77
<표 IV-3> 고립은둔청년 심층면접 참가자 일반적 특성	86

그림 차례

[그림 I -1] 연구방법	6
[그림 III-1] 가족돌봄청년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21
[그림 III-2] 가족돌봄청년의 거주지역	21
[그림 III-3] 가족돌봄청년의 교육수준 및 월평균 근로소득	22
[그림 III-4] 가족돌봄청년의 생활비 부담항목 및 절약 항목	22
[그림 III-5] 가족돌봄청년의 개인 자산 보유정도	23
[그림 III-6] 가족돌봄청년의 저축여부 및 저축을 못하는 이유	23
[그림 III-7] 가족돌봄청년의 주거유형 및 형태	24
[그림 III-8] 가족돌봄청년의 주거환경 어려움 및 주거지 문제점	24
[그림 III-9] 신체적 건강상태 및 질병보유여부	25
[그림 III-10] 가족돌봄청년의 정신적 건강상태	26
[그림 III-11] 가족돌봄청년의 정신건강 유형별 경험정도(1)	26
[그림 III-12] 가족돌봄청년의 정신건강 유형별 경험정도(2)	27
[그림 III-13] 가족돌봄청년의 정신건강 유형별 경험정도(3)	27
[그림 III-14] 가족돌봄청년의 경제활동여부 및 미활동 이유	28
[그림 III-15] 가족돌봄청년의 경제활동 직종 및 고용형태	29
[그림 III-16] 취업정보의 출처 및 취업 시 가장 도움 준 사람	29
[그림 III-17] 현재 직장의 위치	30
[그림 III-18] 가족돌봄청년 취업시 활용서비스 및 우선순위	30
[그림 III-19] 가족돌봄청년 취업 시 가장 어려운 점	31
[그림 III-20] 가족돌봄청년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 지인 수와 만남 어 려움의 원인	31
[그림 III-21]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가족 및 돌봄내용	32
[그림 III-22] 가족돌봄청년의 돌봄행태(1)	33
[그림 III-23] 가족돌봄청년의 돌봄행태(2)	33
[그림 III-24] 가족돌봄청년의 돌봄행태(3)	33
[그림 III-25] 돌봄가족 및 청년자신을 위해 사용해본 서비스	34

[그림 III-26]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인지 및 요청정도	·35
[그림 III-27]	가족돌봄청년이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35
[그림 III-28]	자립준비청년 성별, 연령, 혼인상태36
[그림 III-29]	자립준비청년 거주지37
[그림 III-30]	자립준비청년의 교육수준 및 월평균 가구소득37
[그림 III-31]	자립준비청년 저축여부 및 저축 못하는 이유38
[그림 III-32]	자립준비청년의 생활비 부담 항목 및 절약 항목38
[그림 III-33]	자립준비청년 개인자산보유정도 및 주관적 경제 상황39
[그림 III-34]	자립준비청년 주거유형 및 주거형태39
[그림 III-35]	자립준비청년의 주거환경 어려움 및 주거지 문제점40
[그림 III-36]	자립준비청년 신체적 건강상태 및 진단 질병 보유 여부	·41
[그림 III-37]	자립준비청년의 신체적 건강 유지 어려움41
[그림 III-38]	자립준비청년 정신적 건강상태 및 유형별 경험정도42
[그림 III-39]	자립준비청년의 정신적 건강 유형별 경험정도43
[그림 III-40]	자립준비청년의 경제활동 여부 및 미활동 이유44
[그림 III-41]	자립준비청년의 직종 및 고용형태44
[그림 III-42]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소득 및 현재 직장 위치45
[그림 III-43]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정보 출처 및 취업시 활용 서비스45
[그림 III-44]	자립준비청년 취업의 어려움 및 취업 시 우선순위46
[그림 III-45]	자립준비청년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 지인 및 만나지 못하는 이유46
[그림 III-46]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47
[그림 III-47]	자립과정에 필요한 정보 출처 및 자립준비서비스 도움정도	48
[그림 III-48]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48
[그림 III-49]	고립은둔청년 응답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49
[그림 III-50]	고립은둔청년 응답자의 거주지50
[그림 III-51]	고립은둔청년 응답자의 교육수준 및 월평균 가구소득50
[그림 III-52]	고립은둔청년의 저축여부 및 저축 못하는 이유51
[그림 III-53]	고립은둔청년 응답자의 생활비 부담항목 및 절약항목52
[그림 III-54]	고립은둔청년의 개인자산보유정도 및 주관적 경제상황52

[그림 III-55] 고립은둔청년의 주거유형 및 형태	53
[그림 III-56] 고립은둔청년 주거환경의 어려움 및 주거지의 문제점	53
[그림 III-57] 고립은둔청년의 신체적 건강 및 진단질병 보유 여부	54
[그림 III-58] 고립은둔청년의 신체적 건강 유지 어려움	54
[그림 III-59] 고립은둔청년의 정신적 건강 및 유형별 경험정도	55
[그림 III-60] 고립은둔청년의 정신적 건강 유형별 경험 정도	55
[그림 III-61] 고립은둔청년의 경제활동 여부 및 미활동 이유	57
[그림 III-62] 고립은둔청년의 취업 시 활용 서비스 및 취업 어려움	57
[그림 III-63] 고립은둔청년의 취업 시 우선순위	58
[그림 III-64]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나 지인 수 및 만나지 않는 이유	59
[그림 III-65] 고립은둔청년의 친인적 및 지인과의 관계 정도(1)	59
[그림 III-66] 고립은둔청년의 친인적 및 지인과의 관계 정도(2)	59
[그림 III-67] 고립은둔청년의 고립은둔 시작 시기 및 기간	60
[그림 III-68] 고립은둔청년의 고립은둔 이유	60
[그림 III-69] 고립은둔시 하는 행동	61
[그림 III-70] 고립은둔청년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	62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 목적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적 불황, 노동 불안정성의 확대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배경으로 청년은 다층적 박탈로 고통받는 주요 사회정책 대상으로 부각 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 세대의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남양주시 또한 남양주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특히 청년 세대의 내적 다양성에 조응하는 정책 개발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청년은 계층, 성별, 인적 자원 등에 따라 상이한 욕구를 지닌 하위 집단으로 분화되며 이주 배경, 장애 여부 등 취약 준거에 따라 다양한 취약 청년이 존재한다. 특히 은둔 및 고립, 가족 돌봄, 자립 준비 청년은 최근 새롭게 인지된 취약 계층으로 사회정책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에 남양주시 취약계층 청년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복지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가족돌봄, 자립준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남양주시 취약계층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지원방안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사회조사, FGI, 전문가 자문을 혼용한 혼합적 연구로 진행된다. 각 연구 방법별 세부 내용은 다음에 정리된 바와 같다.

가. 문헌연구

문헌 연구는 가족돌봄, 자립준비, 고립은둔 청년 등 주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국외 및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연구기관 보고서, 기관 홈페이지 문서, 연구 논문 등 다양한 형태의 문헌을 살펴보았다.

나. 사회조사

1) 조사대상자 및 표집방법

조사대상자는 가족돌봄청년 39명, 자립지원청년 30명, 고립은둔청년 51명 총 120명이다. 이들 조사대상자는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통해 추출했다. 가족돌봄청년은 특히 역표집 방법을 적용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접촉해 노인이나 장애인 이용자를 돌보는 청년 가족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역추적했다. 남양주시의 4개 희망케어센터, 장애인복지관, 교통약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표집했다. 더불어 남양주시 당근 마켓에 조사대상자 모집 공고를 올려 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가족의 돌봄 청년 또한 발굴하고자 했다. 고립은둔청년은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남양주시 4개 희망케어센터,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표집했다. 특히 남양주시 고립은둔청년의 자조 모임인 소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했으며 이를 통한 표집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은 남양주시 아동친화팀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표집했다. 아동친화팀에서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전수에 조사 참여를 요청하였다.

2) 조사도구 및 조사영역

사회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는 연구진이 개발한 구조화된 질문지이다. 질문지는 청년 유형별로 가족돌봄청년용 질문지, 자립준비청년용 질문지, 고립은둔청년용 질문지의 세 가지 종류로 개발되었다. 각 유형별 질문지는 공통 질문과 특화 질문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공통 질문은 청년 유형에 관계 없이 세 유형의 청년 모두에게 물었으며, 특화 질문은 해당 청년 유형만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질문으로 해당 청년에게만 물었다.

조사 영역은 첫째, 청년의 현 생활실태와 둘째, 희망하는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했다. 청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상태 및 소득 활동, 교육 및 취업 준비 상황,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상태, 주거 상태, 사회복지 관련 지원의 이용 경험 등을 물었다. 희망하는 사회적 지원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 일, 교육, 건강, 주거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나 급여가 무엇인지 조사했다. 더불어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가족 돌봄의 경험과 어려움,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준비 상황과 어려움, 고립은둔청년은 원인과 경험 등을 물었다.

3)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모바일을 통한 자기기입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구글폼으로 작성한 질문지를 모바일로 전달했다. 조사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입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 완성된 질문지를 연구진에 전달했다.

자료수집을 포함하여 사회조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서울여자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득하여 진행하였다.

다. 심층면접

1) 조사대상자

FGI는 청년 유형별로 2명, 총 6명을 대상으로 했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은 남양주시의 희망케어센터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은 남양주시 아동친화팀을 통해 모집했다.

<[표 1-1] 심층면접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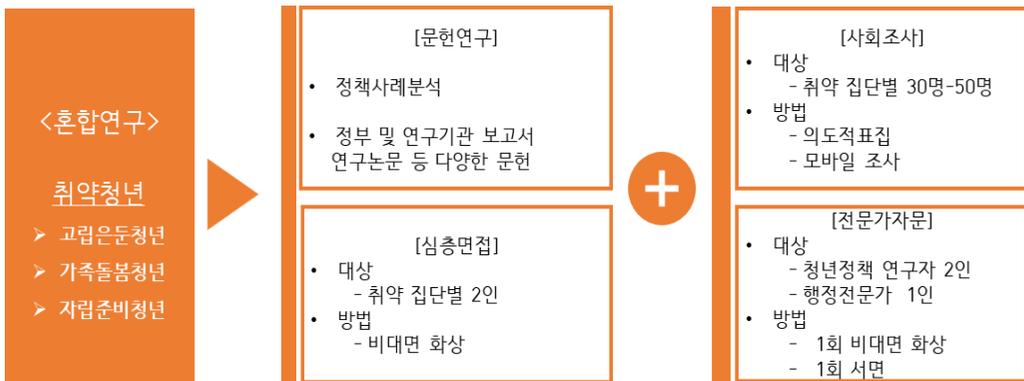
	구분	유형	성별	연령	비고
1	참여자A	가족돌봄	남	21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관계 두절, 현재 할머니와 거주, 요양보호사와 함께 할머니의 돌봄 담당, 현재 대학생
2	참여자B		여	23	중증질환이 있는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소, 현재 3살 어린 남동생과 거주, 어머니의 간병과 동생의 돌봄 담당. 현재 대학생
3	참여자 C	자립준비	여	27	직장인, 보호종료 후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 중
4	참여자 D		남	24	직장인, 보호종료 후 행복주택에서 홀로 거주 중
5	참여자 E	고립은둔	남	22	부모 사망 후 홀로 거주, 기초수급 대상자로 2년 전 공황장애를 겪은 후 고립은둔생활 시작, 현재 대학 휴학 중
6	참여자 F		여	24	부모님과 동거,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후 1년 전부터 고립은둔 생활 시작, 대학 졸업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비대면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했다. 면접자는 연구진이며,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했다. 반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해 면접을 진행했으며 질문은 경제, 교육, 취업, 사회적 관계, 건강, 돌봄과 자립준비 등 다양한 영역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물었다. 가족돌봄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은 2:1 집단면접 방식으로, 고립은둔청년은 1:1 개별면접방식으로 각 1회 진행되었다. 면접 과정은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화했으며, 면접 종료 후 면접 내용을 전사했다. 심층면접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서울여자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득하여 진행하였다.

라.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은 주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연구진이 구체화한 지원방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방안과 정책 방향의 수정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청년정책 연구자, 사회복지정책 연구자, 남양주시 청년 업무 관련 공무원 등 3인으로 구성했다. 1차 자문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으며 2차 자문회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1-1] 연구방법

II. 취약청년별

국내지원정책현황

1.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2.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3. 고립은둔청년 지원정책

II. 취약청년별 국내 지원정책현황

취약청년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는 <표 II-1>과 같다. 사회정책 및 서비스 영역에서 취약청년이 주요 대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따라서 관련 법과 제도도 적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취약청년 중에서 자립준비청년 제도는 최근 많이 확충되었고,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취약청년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취약청년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제도를 도입해 나가고 있다. 중앙정부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지자체가 몇몇 있으나, 대체로 중앙정부의 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작은 규모의 사업을 기획하려고 하거나 이제 막 실행하기 시작한 정도이다.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고립은둔청년이나 가족돌봄청년 제도는 도입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취약청년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2024~2028)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고,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중앙정부의 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이며 자체 사업을 도입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표 II-1> 취약청년 대상 중앙정부 대표 지원정책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청년지원 시범사업 - 발굴 사례관리 - 자기돌봄비 - 일상돌봄서비스 연계 ● 일상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청년지원 시범사업 - 사례관리 - 공동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수당 ● 자립정착금 ● 디딤씨앗통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 지지체계 ● 심리상담 ● 의료비 지원 ● 자립지원전담기관

1.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가. 중앙정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으로는 일상돌봄서비스와 신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이 있다.

1)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202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일상돌봄서비스 신규 추가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24년 현재 90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소득과 상관없이 돌봄욕구가 있는 돌봄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이다. 서비스 내용은 기본서비스인 재가 돌봄 및 가사서비스와 병행동행,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의 특화 서비스 등을 통합지원한다(그림 II-1) 참고). 급여형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이며, 이용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기본

서비스 36시간 이용 시에는 월 648,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특화서비스는 상황에 따라 월 12만원에서 25만원까지 지불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4). 2024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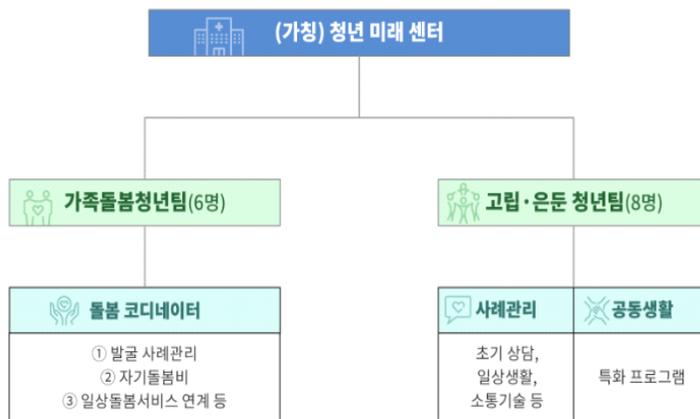
[그림 II-1] 일상돌봄서비스 개요

2) 가족돌봄청년: 신(新) 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2024년 보건복지부는 신(新) 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하였다.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94백만원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광역 단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윈스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는 인천, 울산, 충북(청주), 전북(전주) 4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며, 가족돌봄청년 관련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청년 사업대상은 2,400명이며, 청년미래센터 내 돌봄 코디네이터 배치하고, 발굴사례관리, 자기돌봄비, 일상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한다. 발굴사례관리는 학교병원청(소)년센터와 발굴체계 구축하여 운영하고, 청년 및 가족 지원한다. 자기돌봄비는 2,400명 중 소득, 가족구성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960명을 대상으로 하며, 연 200만원을 지급하여 자기돌봄을 위한 지출만을 허용한다.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정책 총괄, 제도기획, 입법예산,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사업 총괄관리, 보조금 교부, 사업수행기관 선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미래센터는 실제 사업 실행조직으로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민간자원 발굴 연계, 복지부-지자체 업무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II-2] 청년미래센터 조직도

3) 기존 서비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접 서비스는 아니나 가족돌봄청년은 상황에 따라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청년은 새로운 사업 기획 및 실행에 앞서 아래의 다양한 서비스의 효율적·효과적 연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2> 기존 가족돌봄청년 및 가족 관련 서비스

구분	가족돌봄청년 가구에 통합적 지원 가능 서비스(예시)	
돌봄 부담 완화	전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등
	소득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생활도움 지원 등)
	위기	통합사례관리대상 의뢰,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긴급위기 가족지원 등
생계 부담 완화	경제	생계·교육·지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기초연금,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고용	근로·자녀장려금,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사업
	긴급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위기 가족지원
	주거	주거급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집수리 사업,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장기전세주택 공급,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기타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푸드마켓, 문화 바우처,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사업, 차상위 각종 감면, 민감 후원 연계
의료 부담 완화	전 대상	대사증후군 관리, 가사간병통합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치매조기검진, 노안 개인수술비 지원,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
	소득 기준	의료급여,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건강검진, 암검진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학습 지원	기타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대학생 튜터링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2). 가졸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

나. 지방자치단체

전국에 가족돌봄청년과 관련된 조례는 2024년 11월 기준 77개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 관련 자체 정책을 도입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현재로서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거나, 신취약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정도이다.

2.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가. 중앙정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은 소득, 자산형성, 상담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지체계,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다.

1) 경제적 지원: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립수당은 소득지원 정책으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립준비청년 대상에게 보호종료 후 5년 간 자립수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일시에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며, 지역별로 금액은 차이가 존재한다. 서울시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대전, 경기, 제주가 1,500만 원이며, 경남이 1,200만 원이고, 그 외 지역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표 II-3>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4년 기준)

서울	대전, 경기, 제주	경남	그외
2,000만 원	1,500만원	1,200만원	1,000만원

디딤씨앗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0세부터 만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2비율로 정부지원금(월10만원 한도)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18세 이후 사회진출 초기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립준비청년 중 저소득청년에게 해당되는 공공부조제도로 자립준비청년의 특징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수급 자격 완화, 시설 외 거주 보호연장아동 대상 개별급여 전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보호종료 5년 간 소득조사 시 사업근로소득 공제를 공제한다(60만원+나머지 소득의 30% 공제).

2) 심리정서 지원: 지지체계, 심리상담

지지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아동 대상 자립교육·멘토링을 수행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자립멘토단)·자조모임을 운영하고 활동비를 지원한다. 바람개비서포터즈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만29세 이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연장아동 및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의 자조모임이다.

심리상담 지원을 위하여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포함하여 지원(본인부담금 제외)하고 있다.

3) 기타 지원: 의료비 지원,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기타 지원으로는 의료비 지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이 있다.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지원하는 제도이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은 17개 시도에서 운영되며, 자립지원관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등을 지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에는 대표적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2024~2028)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있다. 이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두 가지로, 한 가지는 지원기간을 자립준비기간에서 자립준비청년 전 단계부터 자립지원 종료 이후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개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 30개 세부사업으로 마스터플랜을 구성하고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출처: 서울시. (2024).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

[그림 II-4]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2024~2028)

3. 고립은둔청년 지원정책

가. 중앙정부: 신(新) 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위 가족돌봄청년 파트에서 언급한 신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의 주요 대상 중 하나는 고립은둔청년이다. 2024년 신규 도입한 제도이며, 사업기간, 예산, 지역은 가족돌봄청년과 유사하다. 고립은둔청년 대상은 청년 320명, 가족 640명이고,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사업내용은 가족돌봄청년과 약간 상이하다. 고립은둔청년의 특징을 고려하여 원스톱 맞춤형 발굴 및 지원을 실시하며, 프로그램은 초기상담, 일상회복(공동생활 포함), 가족대인관계, 일경험 등이 있다.

<표 II-4> 고립은둔청년지원 시범사업(2024)의 주요 지원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비고
초기상담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등 마음건강	자가진단
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은둔자 주축으로 참여한 SNS ‘일상생활 챌린지’ 등 - 신체/예술/놀이활동/3끼 식사 등 -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관계형성
	공동생활 홈(Home) 운영 - 수면 및 위생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은둔 특화
가족·대인관계 회복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부모참여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 탈 고립·은둔 성공경험 청년, 민감 자원봉사자 등 서포터즈 구성	대인접촉 소통기술
일 경험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연계 -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일 경험 등) 지원 연계	사회복지 시도

나. 지방자치단체: 광주, 서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광주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에관한조례를 근거로 하여 3년 간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을 실시해오다가 2024년부터 사업을 서울기지개센터(신설)로 통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서울 거주 만19~39세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으로, 청년기본법의 19~34세보다 연령 폭이 넓다. 지원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1) 개인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지원 및 마음건강 정책 연계 지원, 2)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3) 고립상태 해소를 위한 대인관계역량 강화, 활동형 및 체험형 프로그램, 4) 온라인 상호작용 프로그램, 생활습관 형성, 공동생활 및 방문상담(소규모 인원)이다. 부모교육과 멘토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는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021)에 따라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은둔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는 고립을 고려하지 않고 은둔형외톨이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은둔형외톨이 연령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내용은 다양한데, 구체적으로는 방문, 내방, 온라인 상담 및 교육, 은둔성향 단계별 치유 프로그램, 당사자 집단상담 및 대화모임, 방탈출 서비스를 통한 도전 프로그램, 은둔고수되기 프로그램, 부모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Ⅲ. 취약청년별

복지실태 및 요구분석

1. 가족돌봄청년 복지실태 및 요구분석
2. 자립준비청년 복지실태 및 요구분석
3. 고립은둔청년 복지실태 및 요구분석

Ⅲ. 취약청년별 복지실태 및 요구분석

1. 가족돌봄청년 복지실태 및 요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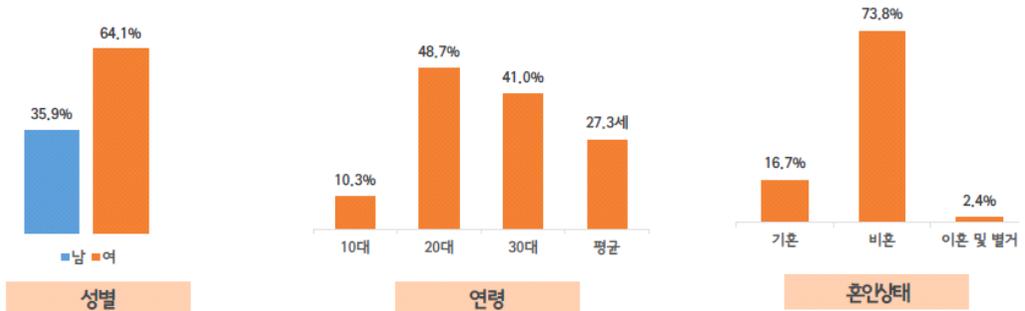
가. 조사 시행

가족돌봄청년 대상 설문은 10월 4일~28일까지, 총 25일간 온라인 설문 플랫폼(구글 폼)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남양주시복지재단을 통해 지자체 내 복지시설 등에 설문링크를 기재한 공문을 송부하고 유무선으로 이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 중, 가족돌봄청년에 적합한지를 선별하는 여과질문을 우선 배치하였으며, 적합자 중 마지막 문항까지 성실히 답한 5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나. 설문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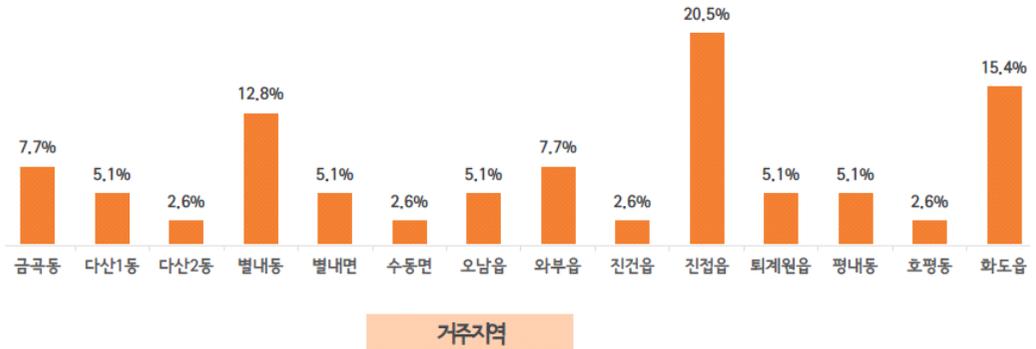
1) 일반현황

가족돌봄청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64.1%는 여성이며, 그들의 48.7%가 20대, 41.3%가 34세 이하의 30대로, 평균 27.3세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73.8%인 다수는 비혼 상태이며, 16.7%만이 기혼, 2.4%가 이혼 및 별거 상태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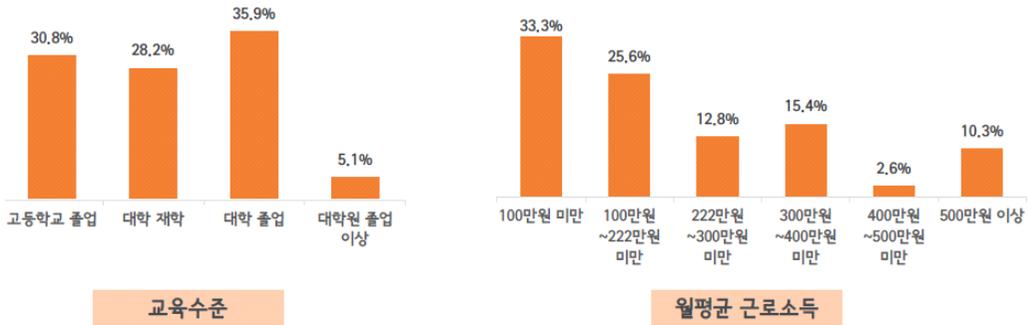
[그림 III-1] 가족돌봄청년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응답자의 20.5%는 진접읍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화도읍 15.4%, 별내동 12.8%, 와부읍과 금곡동이 각 7.7%, 다산1동과 퇴계원읍이 5.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수동면, 호평동, 진건읍 등의 거주자는 2.6%로 소수를 차지하고 있어, 응답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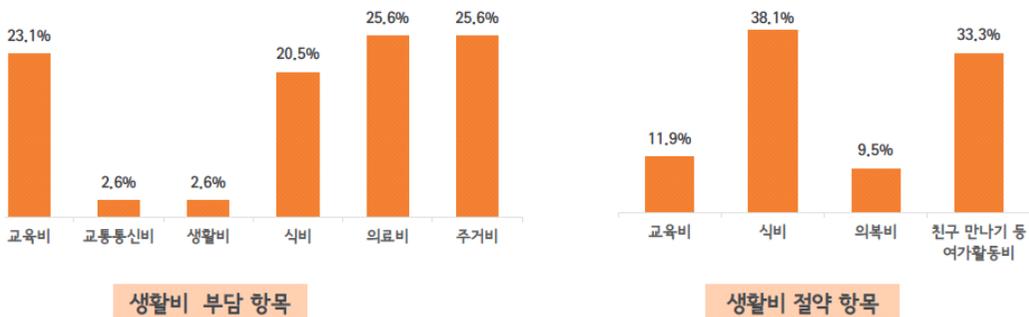
[그림 III-2] 가족돌봄청년의 거주지역

응답자의 35.9%가 대학졸업자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30.8%, 대학재학이 28.2%, 대학원졸이 5.1%로 고등교육을 경험한 청년이 전체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전체의 1/3이 100만원 미만이며, 100~222만원이 25.6%로 전체의 과반이 넘는 68.9%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 가족돌봄청년의 교육수준 및 월평균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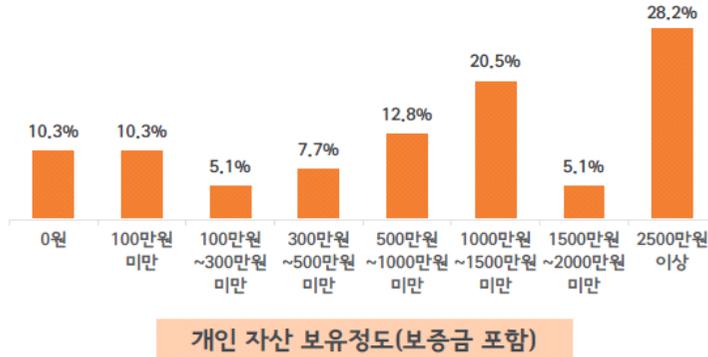
한편, 가족돌봄청년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 항목으로는 의료비와 주거비가 각 25.6%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23.1%), 식비(20.5%)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거비와 식비,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의료비 등이 생활 안정과 영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임을 고려할 때,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항목으로 식비와 여가활동비 등을 우선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돌봄청년 및 대상자의 가족 건강에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를 확인받게 된다.



[그림 4] 가족돌봄청년의 생활비 부담항목 및 절약 항목

가족돌봄청년의 개인자산 보유정도를 살펴본 결과, 28.2%가 25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00~1500만원이 20.5%로 나타난 반면, 보유자산이 전혀 없는 청년도 10.3%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포함한 개인의 자산정도임을 고려할 때, 전

반적으로 가졸돌봄청년의 경제상황이 넉넉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 5] 가족돌봄청년의 개인 자산 보유정도

2) 경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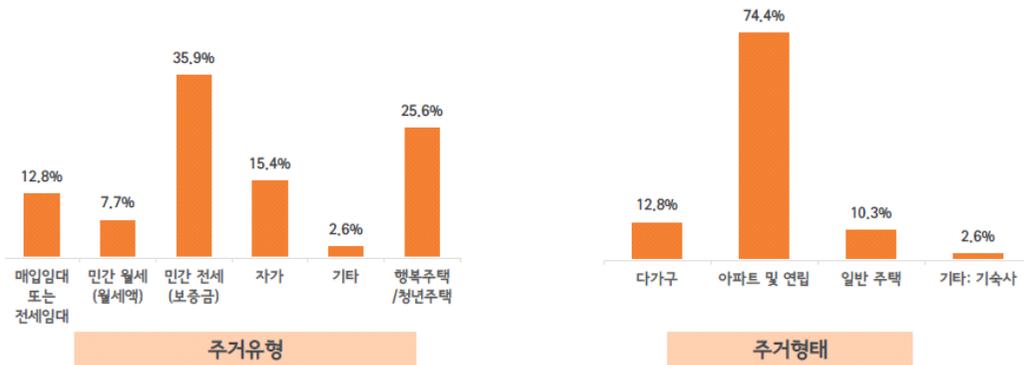
가족돌봄청년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과반을 조금 상회하는 56.4%가 미래를 위해 적금 등의 저축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들의 월평균 저축액은 46.14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축을 하지 않는 43.6%는 저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전원이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여, 미래를 위한 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6] 가족돌봄청년의 저축여부 및 저축을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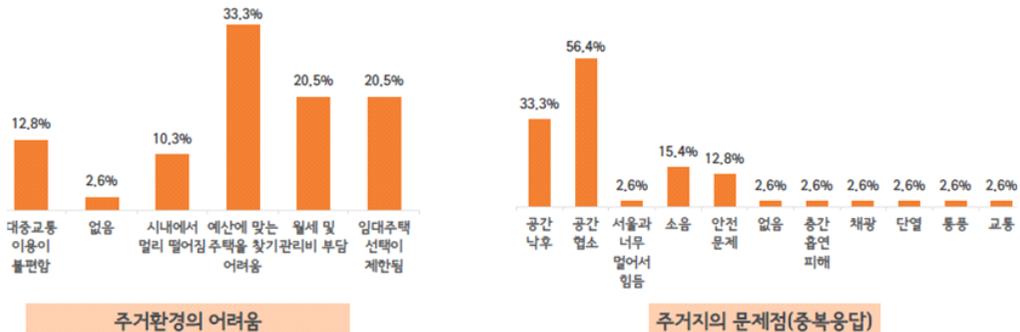
3) 주거환경

가족돌봄청년 대상 응답자의 35.9%는 민간전세(보증금), 25.6%가 행복주택(청년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15.4%만이 자가 거주로 나타났으며, 주거형태의 74.4%가 아파트 및 연립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I-7] 가족돌봄청년의 주거유형 및 형태

또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33.3%가 예산에 맞는 주택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월세 및 관리비 부담(20.5%), 임대주택 선택 제한(20.5%)의 순으로 나타나, 거주지 선택에 대한 예산부담이 가족돌봄청년이 맞닥뜨리는 주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과반수가 넘는 56.4%가 공간 협소를 들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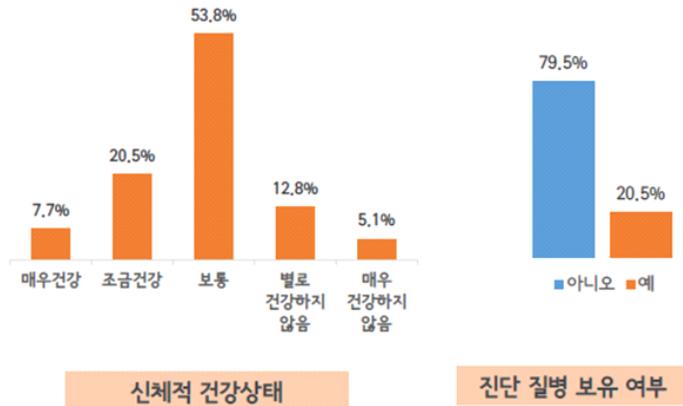


[그림 III-8] 가족돌봄청년의 주거환경 어려움 및 주거지 문제점

4) 건강상태

○ 신체적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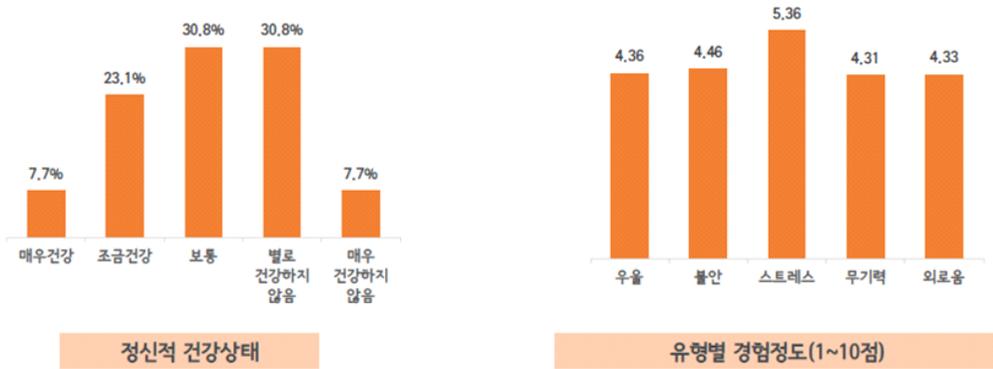
한편, 가족돌봄청년의 53.8%가 신체적 건강 정도를 보통으로, 28.2%가 건강하다고 답하였으며, 진단 질병을 보유한 청년은 20.5%로 나타나 현재의 신체적건강상태는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의 38.5%가 운동할 여유가 없거나, 식사(28.2%) 및 수면부족(15.4%) 등의 이유임을 감안할 때, 가족돌봄청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상태 또한 취약해 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III-9] 신체적 건강상태 및 질병보유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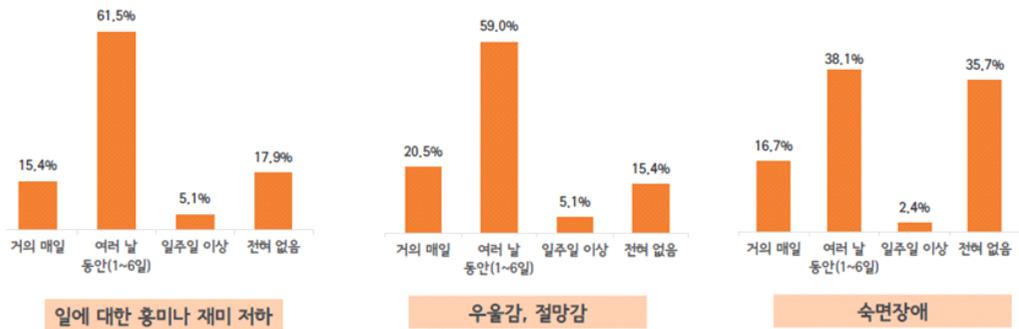
○ 정신적 건강

반면, 정신적 건강 정도는 신체적 건강과 달리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건강하지 않다고 답한 이들이 38.5%로, 전체의 1/3 이상이 정신적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적 건강의 정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5.36으로 가장 높고 불안(4.46), 우울(4.36), 외로움(4.33), 무기력(4.31)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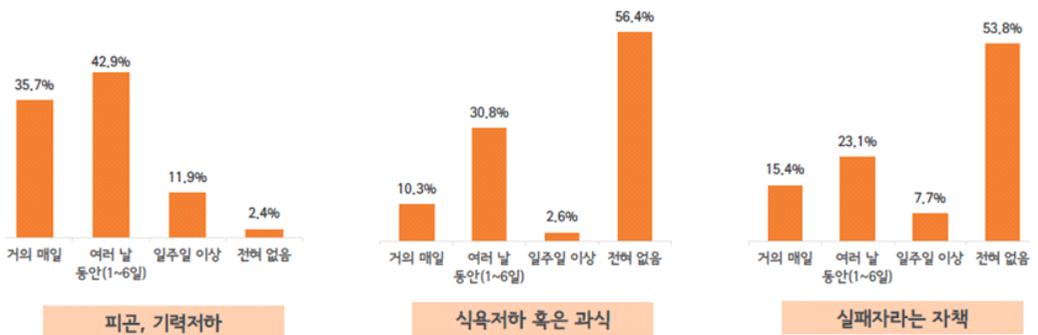
[그림 III-10] 가족돌봄청년의 정신적 건강상태

구체적으로, 정신적 건강 내용에 따라 지난 2주간 해당 어려움을 얼마나 겪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에는, 어떤 일에 흥미나 재미가 저하되는 경험을 여러날 동안(1~6일) 겪은 청년이 61.5%, 거의 매일 겪는 이가 15.4%로 나타났으며,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여러 날 동안 겪은 청년이 59%, 거의 매일 겪는다는 응답자도 20.5%로 나타나 일상에 대한 흥미와 우울정도를 갖게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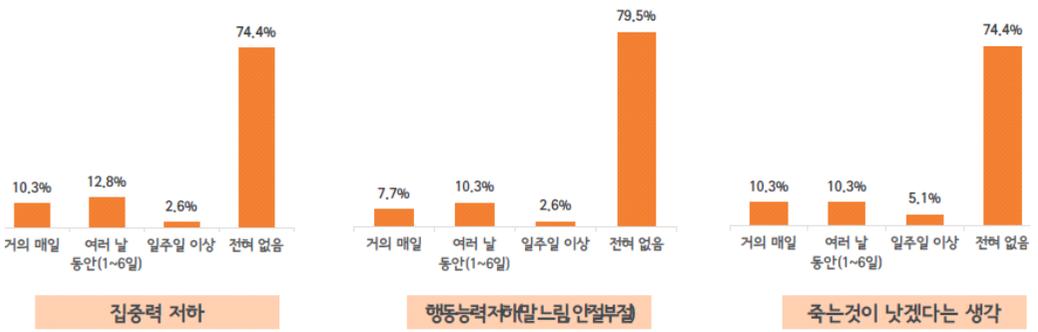


[그림 III-11] 가족돌봄청년의 정신건강 유형별 경험정도(1)

또한 피곤함과 기력저하를 거의 매일 겪는 가족돌봄청년이 35.7%로 높게 나타나,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가족돌봄에 따른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타 경험정도를 전혀 겪지 않는다는 응답이 10% 내외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식욕 저하와 과식, 실패자라는 자책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 56.4%, 53.8%, 집중력 저하와 행동능력저하,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은 74.5%, 79.5%, 74.4% 등으로 여타 경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취약성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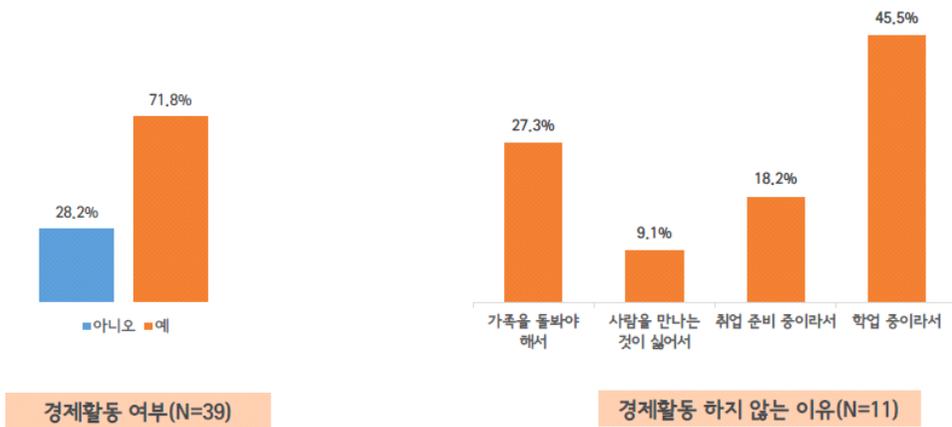
[그림 III-12] 가족돌봄청년의 정신건강 유형별 경험정도(2)



[그림 III-13] 가족돌봄청년의 정신건강 유형별 경험정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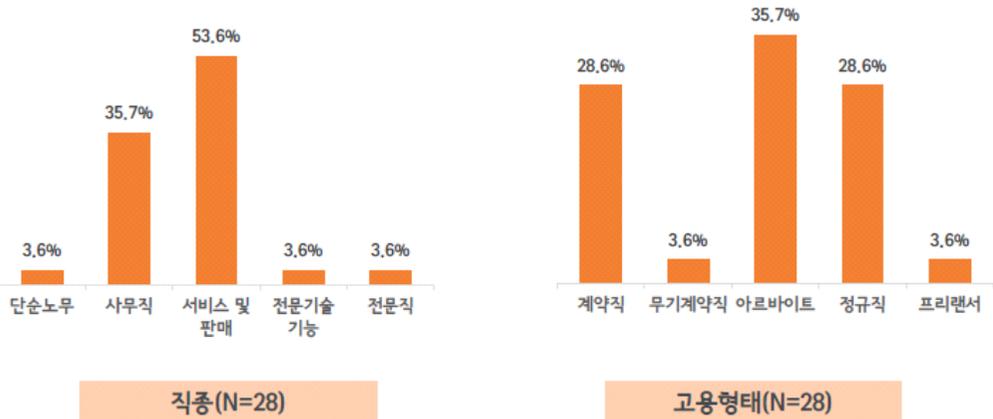
5) 경제활동

한편, 가족돌봄청년의 71.8%는 현재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28.2%는 학업 중이거나(45.8%) 가족돌봄(27.3%), 그리고 취업준비(18.2%)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의 부담이 청년의 경제활동에 부정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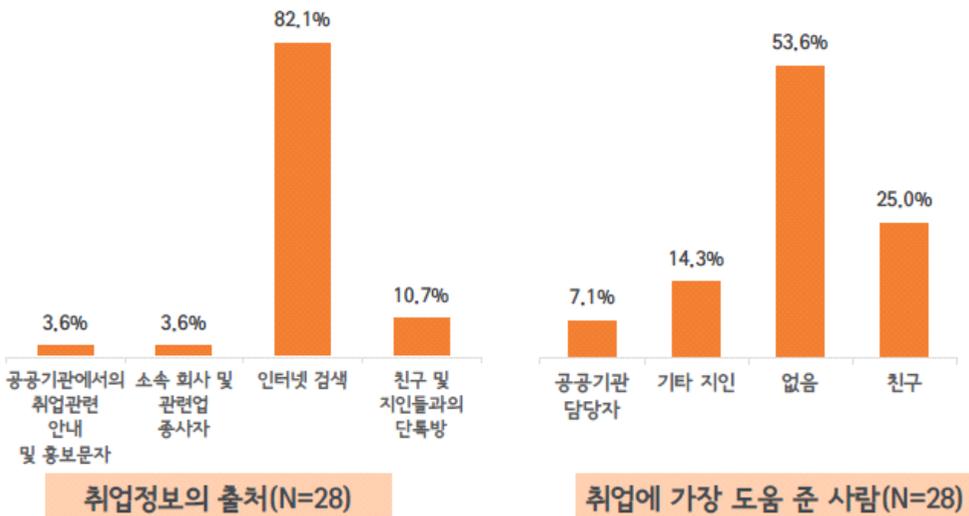
[그림 III-14] 가족돌봄청년의 경제활동여부 및 미활동 이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53.7%는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어, 다수가 타 직종에 비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직종으로 진입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사무직이 35.7%, 단순노무, 전문직, 전문기술 및 기능직이 3%대로 소수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일하는 고용형태 역시 아르바이트(35.7%)와 계약직(28.6%)이 64.3%로 다수를 차지하며, 정규직 비율은 28.6%에 그치고 있어, 고용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에 다수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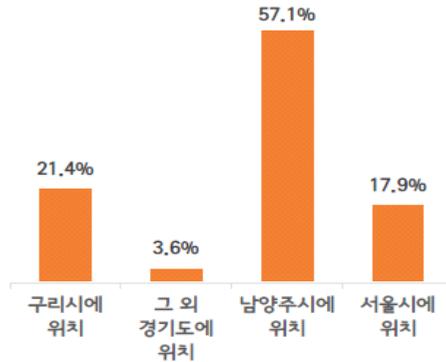


[그림 III-15] 가족돌봄청년의 경제활동 직종 및 고용형태

가족돌봄청년의 82.1%가 인터넷을 통해 취업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에 도움 준 사람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또한 53.6%로 가장 많아, 취업 정보 탐색에 있어 개별 가족돌봄 청년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직장의 위치는 거주지 인근인 남양주시에 위치한 경우가 5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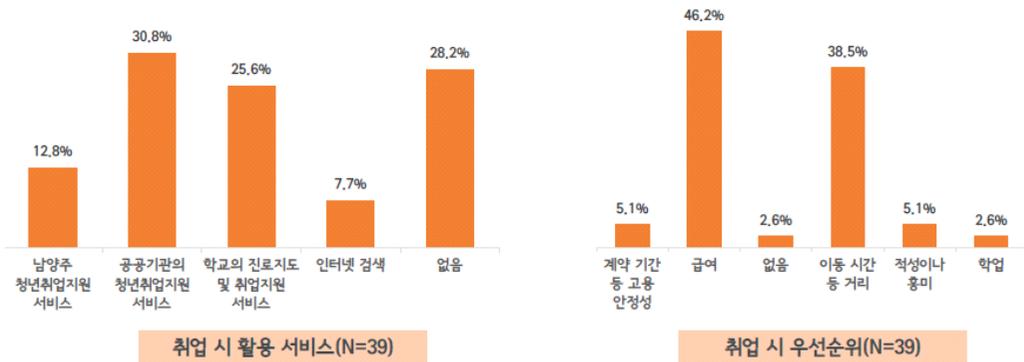


[그림 III-16] 취업정보의 출처 및 취업 시 가장 도움 준 사람



[그림 III-17] 현재 직장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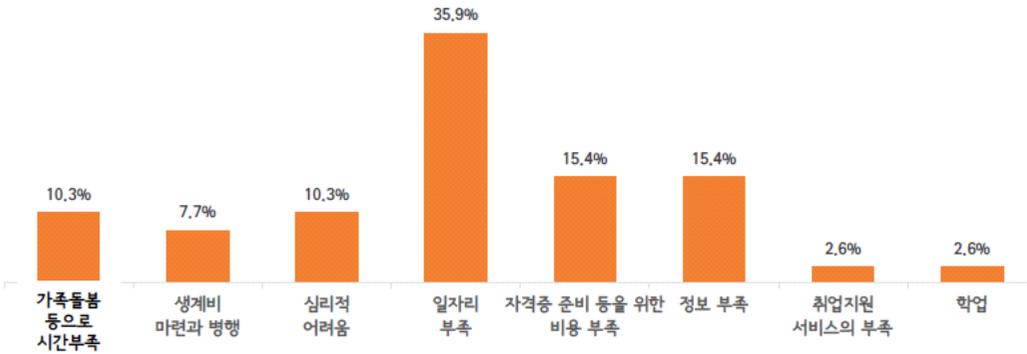
또한, 취업 시 주로 활용한 서비스로는 공공기관의 청년창업지원서비스와 학교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각각 30.9%, 25.6%로 나타났으며, 없다고 답한 이들도 2번째로 28.2%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돌봄청년이 취업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급여가 46.2%가 가장 높았으며, 이동 시간 등 거리가 38.5%로 차순으로 높아, 경제적 보상 뿐 아니라 이동 등의 편의 및 접근성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임이 확인되었다.



[그림 III-18] 가족돌봄청년 취업시 활용서비스 및 우선순위

가족돌봄청년의 취업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일자리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자격증 준비 등을 위한 비용 부족과 정보 부족이 각 15.4%, 그리고 가족돌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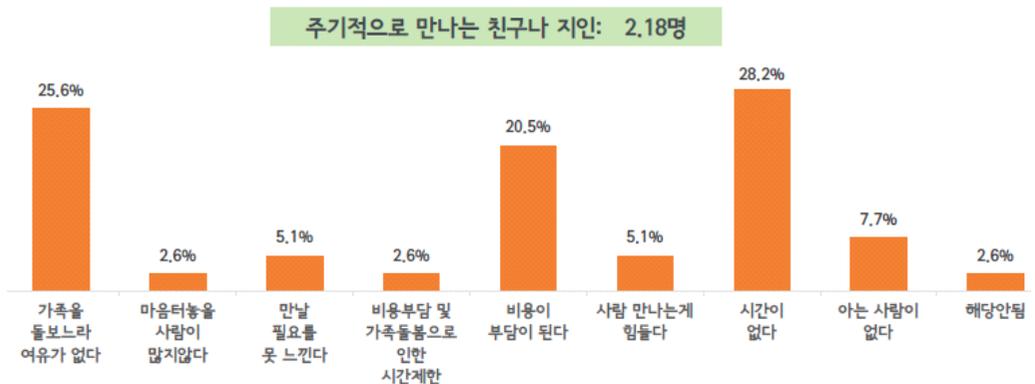
으로 인한 시간부족과 심리적 어려움 등을 각 10.3%의 순으로 꼽아, 가족돌봄으로 인한 개인적 환경의 어려움 뿐 아니라, 노동시장 자체의 어려움을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III-19] 가족돌봄청년 취업 시 가장 어려운 점

6) 사회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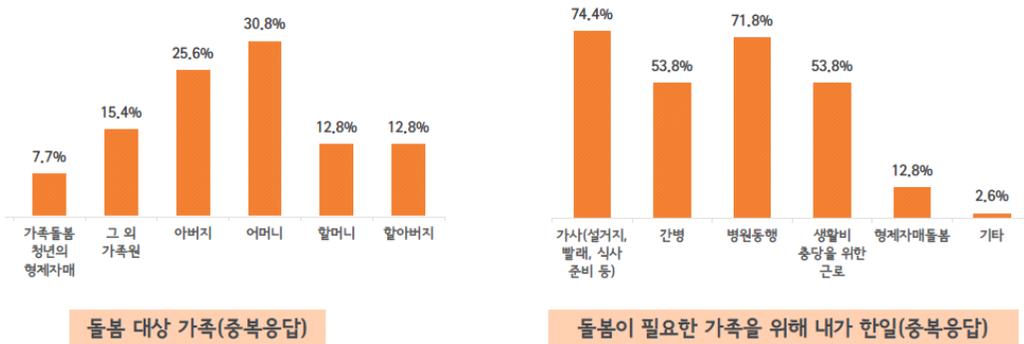
가족돌봄청년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나 지인은 2.18명이며, 주기적 만남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시간(28.2%)과 가족돌봄으로 인한 여유 부족(25.6%)을 가장 높게 택하였으며, 비용 부담(20.5%) 또한 차순으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한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 등의 물리적 환경이 가장 큰 장애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림 III-20] 가족돌봄청년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 및 지인 수와 만남 어려움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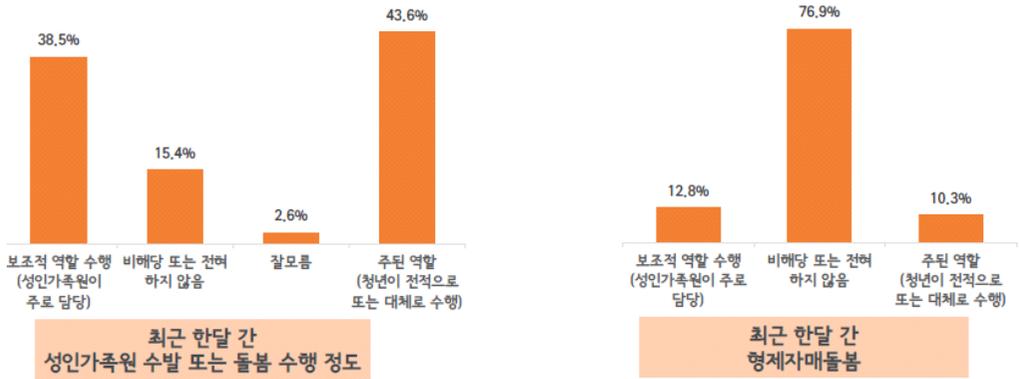
7) 돌봄행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대상 가족으로는 어머니가 30.8%, 아버지가 25.6%로 부모님을 돌보는 응답자가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조부모가 25.6%, 형제자매가 7.7%로 나타나, 부모 및 조부모의 돌봄을 경험하는 경우가 전체의 82%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돌봄대상 가족을 위해 돌봄청년이 경험한 일로서는 가사(설거지, 빨래, 식사 준비 등)가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병원동행(71.8%), 생활비 충당을 위한 근로(53.8%), 간병(53.8%), 형제자매돌봄(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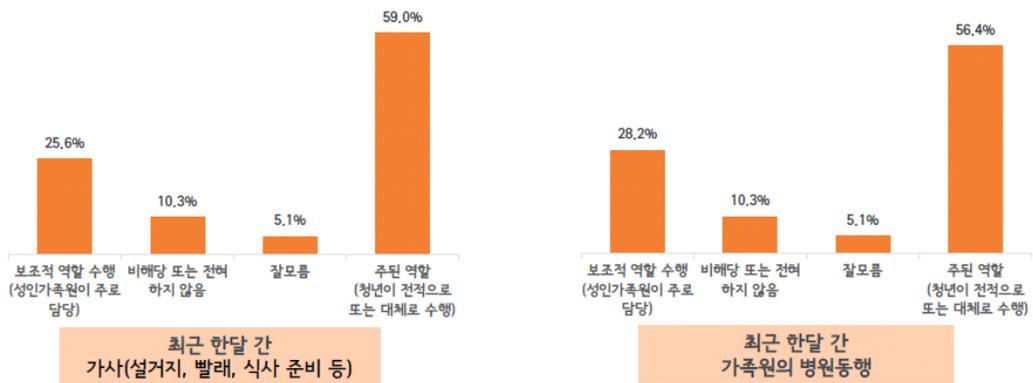


[그림 21]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가족 및 돌봄내용

각 돌봄의 내용 별, 최근 한달 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정도를 살펴보면, 성인가족원의 돌봄에 청년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은 43.6%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는 38.5%로 나타났다. 반면, 형제자매돌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은 10.3%에 불과했으며 비해당되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9%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설거지, 빨래, 식사 준비 등 가사에 대해 청년이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으며, 병원 동행 56.4%, 기타 가족의 신변처리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46.2%로 나타나, 모든 돌봄에 대해 청년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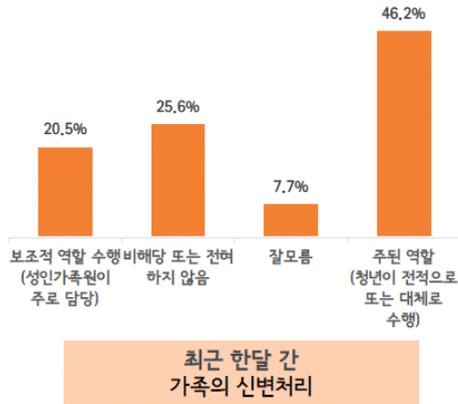


[그림 III-22] 가족돌봄청년의 돌봄행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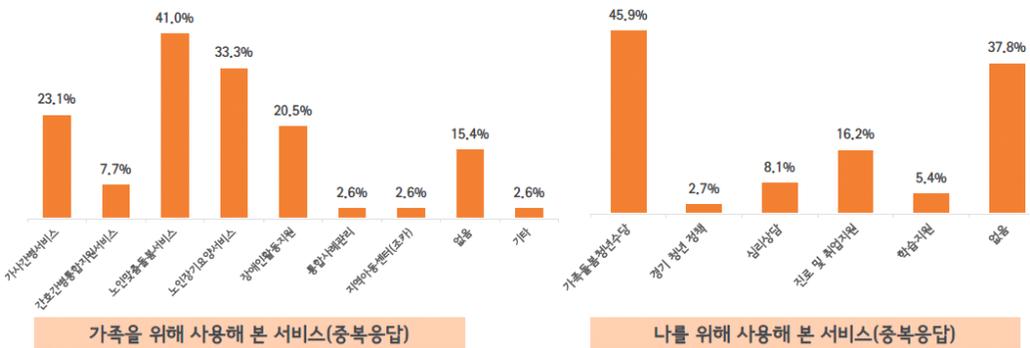


[그림 III-23] 가족돌봄청년의 돌봄행태(2)

또한, 돌봄가족을 위해 사용해 본 서비스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41%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33.3%, 가사간병서비스가 23.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돌봄서비스의 내용을 감안할 때 이는 돌봄대상 가족의 80% 이상이 부모 및 조부모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본인을 위해 사용해본 서비스로는 가솔돌봄청년수당이 45.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어떤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 또한 37.8%로 차순위로 높게 나타나, 본인을 위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상당히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24] 가족돌봄청년의 돌봄행태(3)



[그림 III-25] 돌봄가족 및 청년자신을 위해 사용해 본 서비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69.2%에 달했으며, 서비스 요청 경험이 없는 비율도 76.9%에 달해, 기시행 서비스에 대한 인지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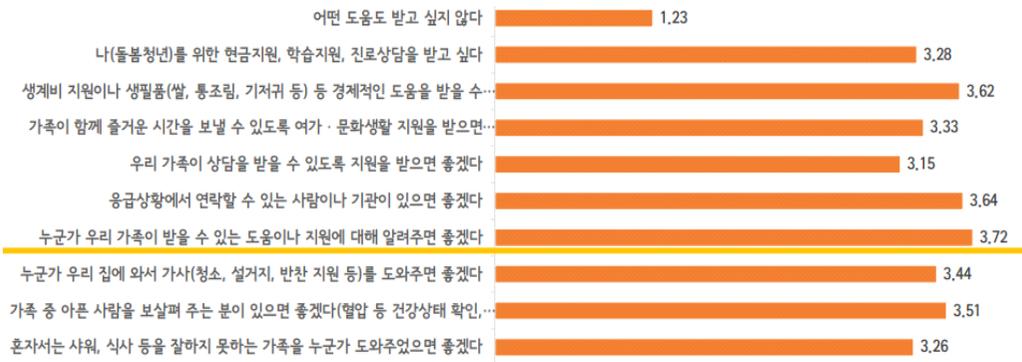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인지 정도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서비스 요청 경험

[그림 III-26]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인지 및 요청정도

가족돌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정보를 가족 맞춤형으로 잘 전달받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응급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3.64), 경제적 지원(3.62), 아픈 가족을 도와줄 사람(3.51)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족돌봄가족이나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III-27] 가족돌봄청년이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

2. 자립준비청년 복지실태 및 요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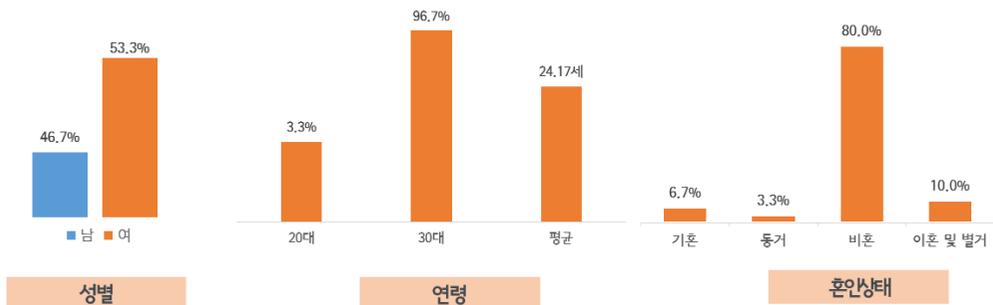
가. 조사 시행

자립준비청년 대상 설문은 10월 4일~11월 18일까지, 총 45일간 온라인 설문 플랫폼(구글 폼)을 통해 시행되었다. 남양주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대상자에게 해당 설문링크를 송부하고 이에 응답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확보된 50여명의 조사 대상자 중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3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나. 설문 분석 결과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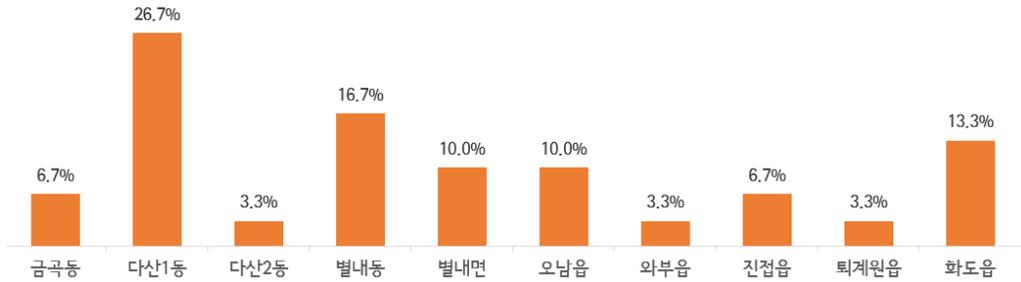
자립준비청년 조사대상자의 53.3%는 여성이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4.17세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연령이 낮은 것과 관련하여 혼인상태 또한 전체 응답자의 다수인 8%가 비혼 상태로 확인되었다.



[그림 III-28] 자립준비청년 성별, 연령, 혼인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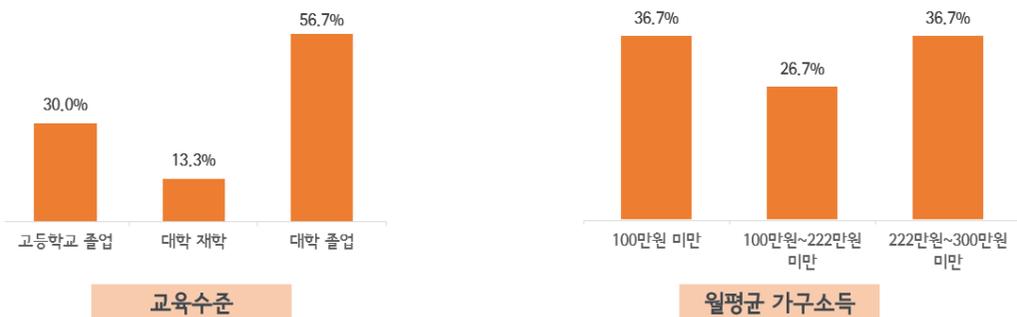
응답자의 30%가 다산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별내동이 16.7%, 화도읍이 13.3% 별내면과 오남읍이 각각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와부읍(3.3%)과 퇴계

원읍(3.3%), 진접읍(6.7%) 등에서는 응답자 비율이 낮게 확인되었다.



[그림 III-29] 자립준비청년 거주지

자립준비청년 응답자의 56.7%가 대학졸업자로 고등교육을 경험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과 222~300만원 사이가 각각 36.7%로 나타났다. 반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의 가구소득에서 확인되었던 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III-30] 자립준비청년의 교육수준 및 월평균 가구소득

2) 경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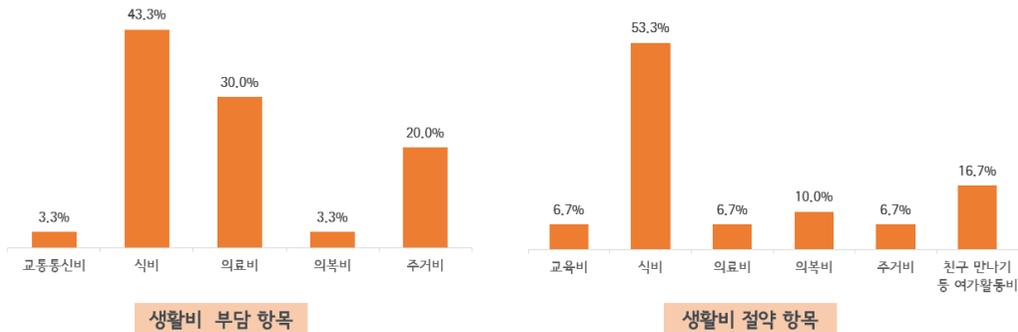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66.7%가 적금 등의 저축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들의 월평균 저축액은 58.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집단보다 높은 비율 및 저축액으로,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유효하게 진행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축을 하지 않는 33.3%는 해당 이유로 돈 부족(90.0%)을 가장 큰 이유로 답하였다.



[그림 III-31] 자립준비청년 저축여부 및 저축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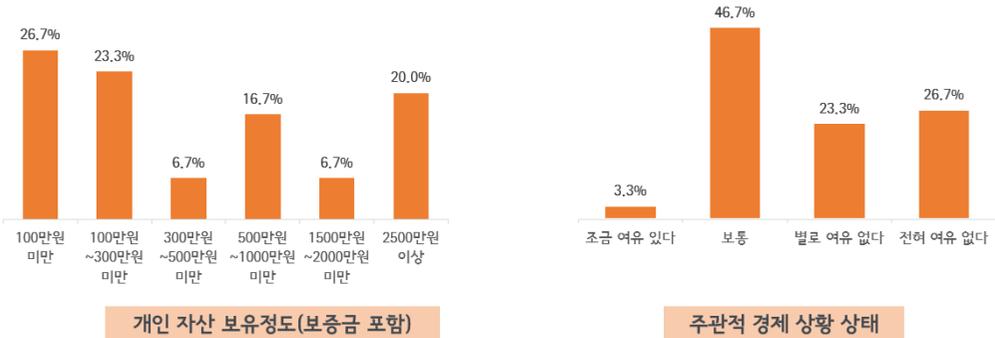
한편, 자립준비청년에게 부담이 되는 생활비 항목으로는 식비가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비 30.0%, 주거비 30.0%의 순으로 나타나, 식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항목에서도 식비가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활동비 16.7%, 의복비 10.0%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I-32] 자립준비청년의 생활비 부담 항목 및 절약 항목

자립준비청년의 개인자산 보유정도를 살펴본 결과, 23.3%가 100~3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청년이 26.7%로 나타나,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상황이 넉넉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6.7%로 가장 많고, 전혀 여유 없다 26.7%,

별로 여유없다 2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3] 자립준비청년의 개인자산보유정도 및 주관적 경제 상황 상태

3) 주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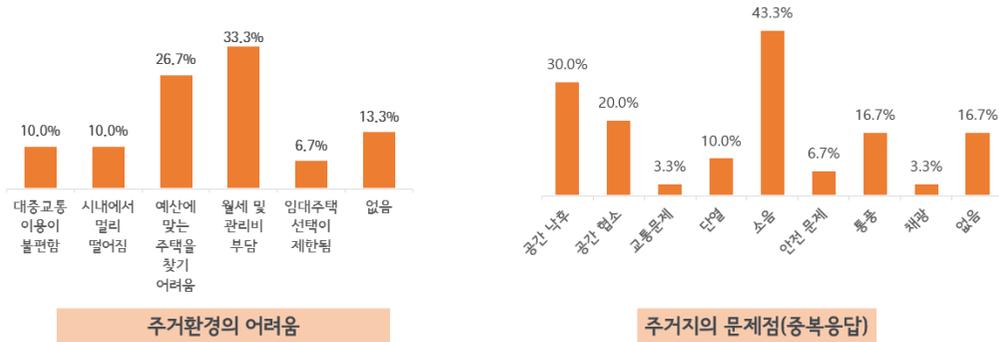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유형으로는 매입 또는 전세 임대가 36.7%로 가장 높았으며, 행복주택(청년주택)이 26.7%, 자가 16.7%의 순이었으며, 주거형태로는 60.0%인 다수가 아파트 및 연립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I-34] 자립준비청년 주거유형 및 주거형태

현재 주거지 기준, 주거환경의 어려움으로 월세 및 관리비 부담이 33.3%, 예산에 맞는 주택 찾기가 26.7% 순으로 나타나 주거와 관련된 예산 이슈가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주하는 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는 소음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공간 낙후가 30.0%, 공간 협소가 20.2%, 통풍 등이 16.7%로 나타나 집 안의 환경 뿐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는 거주지 주변

의 환경 또한 쾌적한 환경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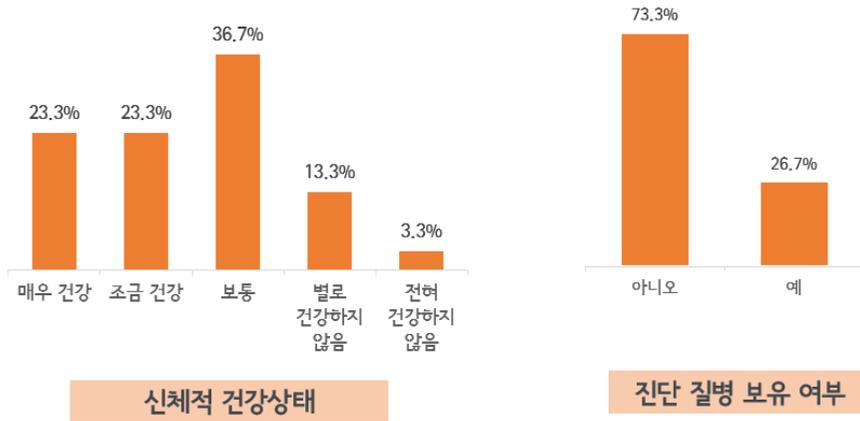


[그림 III-35]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환경 어려움 및 주거지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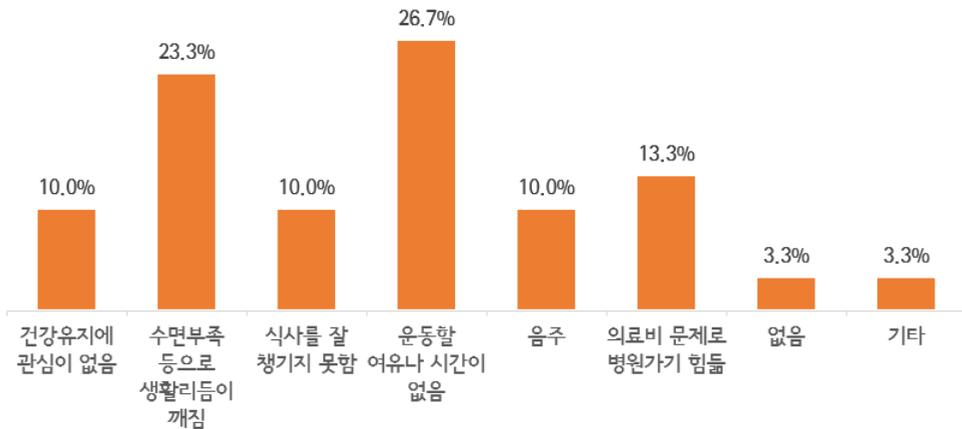
4) 건강상태

○ 신체적 건강

자립준비청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 36.7%로 가장 높고, 조금 건강 및 매우 건강이라고 답한 비율이 총 46.6%, 강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16.6%이며, 진단 질병을 보유하지 않은 이 또한 전체의 73.3%로 나타나, 신체적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로 운동할 시간이 없거나(26.7%), 수면부족(23.3%) 등으로 인한 불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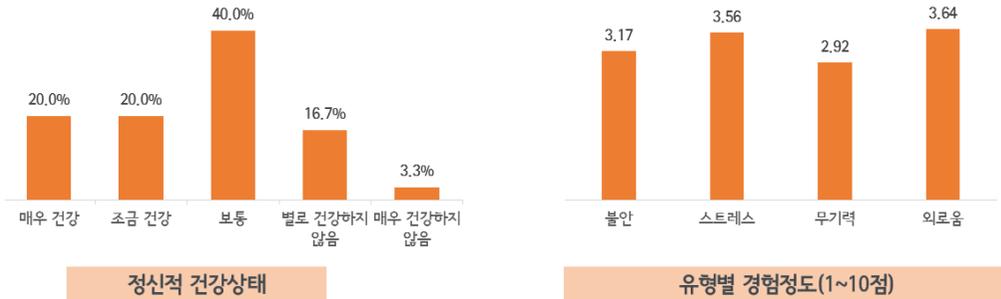
[그림 III-36] 자립준비청년의 신체적 건강상태 및 진단 질병 보유 여부



[그림 III-37] 자립준비청년의 신체적 건강 유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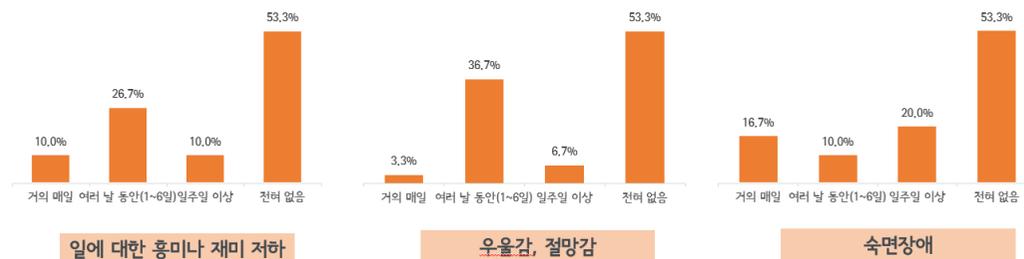
○ 정신적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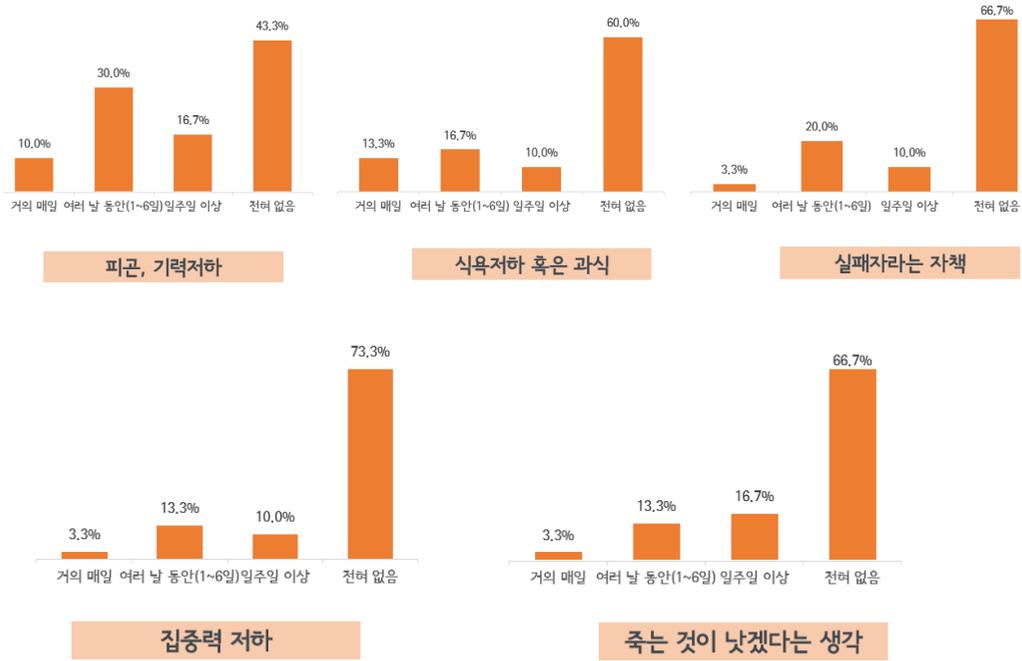
정신적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20.0%로 신체적 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유형별 경험정도를 살펴보면 외로움이 3.64로 가장 높고, 스트레스가 3.5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38] 자립준비청년 정신적 건강상태 및 유형별 경험정도

지난 2주간의 구체적인 경험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 집단에 비해 일에 대한 흥미나 재미저하, 우울감 및 절망감, 숙면장애, 기력저하 등 전 항목에서 해당 항목을 지난 2주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정신적 건강이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집단 내에서는 숙면장애를 매일 겪는 다는 응답이 16.7%, 피곤과 기력저하 등이 10.0%로 높게 활동에 대한 기능장애 및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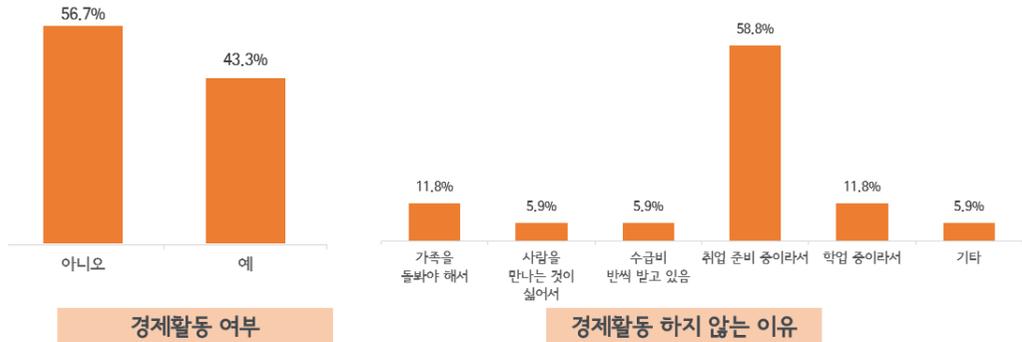




[그림 III-39] 자립준비청년의 정신적 건강 유형별 경험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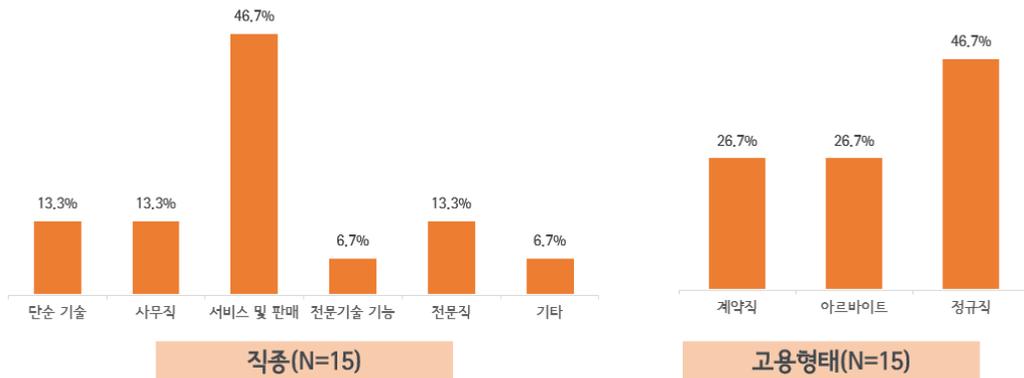
5) 경제활동

자립준비청년의 43.3%가 소득을 동반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의 58.8%는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상태였으며, 11.8%가 학업 중으로 나타나 취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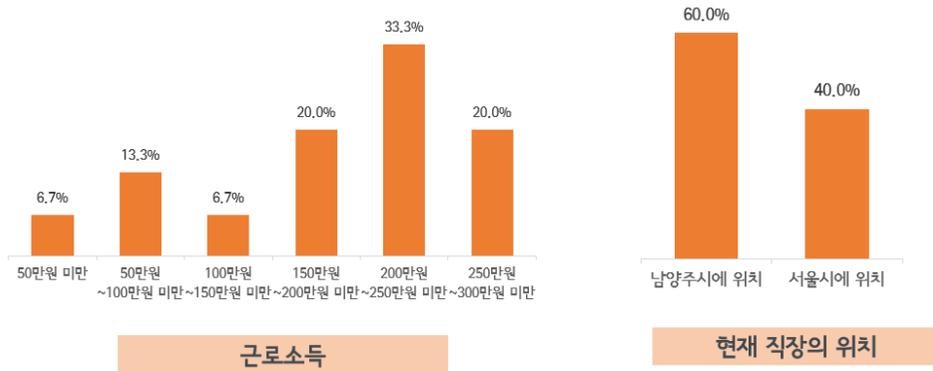
[그림 III-40] 자립준비청년의 경제활동 여부 및 미활동 이유

경제활동을 한다는 응답자 중 46.7%는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어 다수가 타 직종에 비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직종으로 진입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단순기술, 사무직, 전문직이 각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일하는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이 46.7%로 가장 많았고 계약직과 아르바이트가 각 26.7%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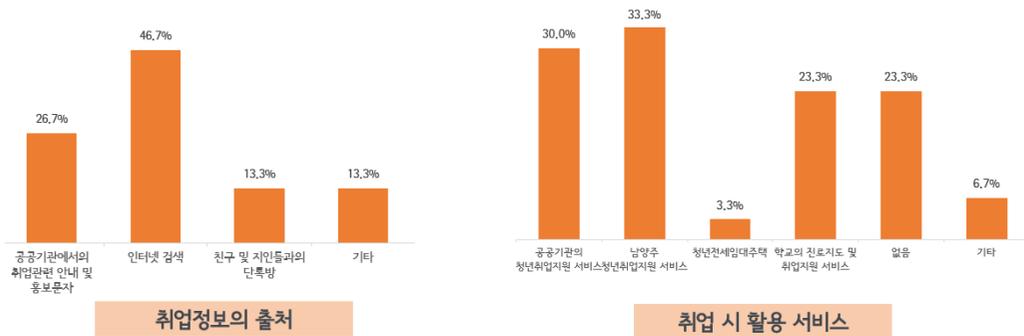
[그림 III-41] 자립준비청년의 직종 및 고용형태

개인 근로소득은 평균 200~250만원이 33.3%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고, 150~200만원 과 250~300만원이 20.0%로 나타났으며, 현재 직장의 위치는 열에 여섯은 남양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I-42]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소득 및 현재 직장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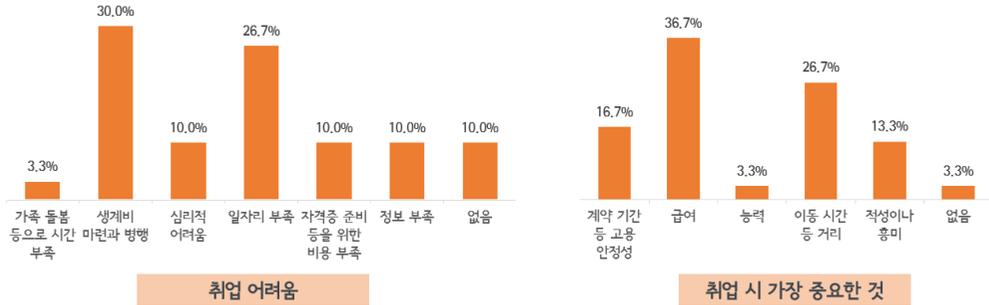
한편, 취업 정보는 인터넷을 활용했다는 응답이 46.7%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에서의 취업관련 안내 및 홍보문자가 26.7% 순으로 나타나, 본인의 역량에 따른 취업 정보의 획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 시 활용한 서비스로는 남양주 청년취업지원서비스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없다고 한 응답 또한 23.3%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III-43]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정보 출처 및 취업시 활용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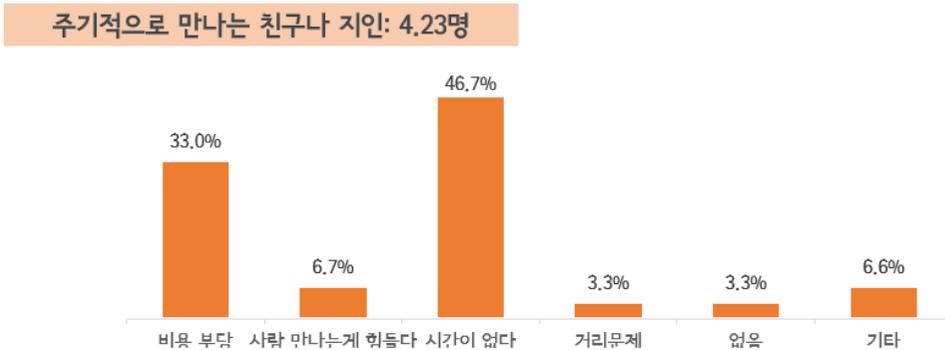
또한, 자립준비청년은 취업 준비 시 겪는 어려움으로 생계비 마련과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30.0%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부족이 26.7%, 심리적 및 비용 부담, 정보 부족 등이 각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급여가 36.7%로 가장 높고 이동 시간 등 거리가 26.7%로 차순으로

나타나,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구안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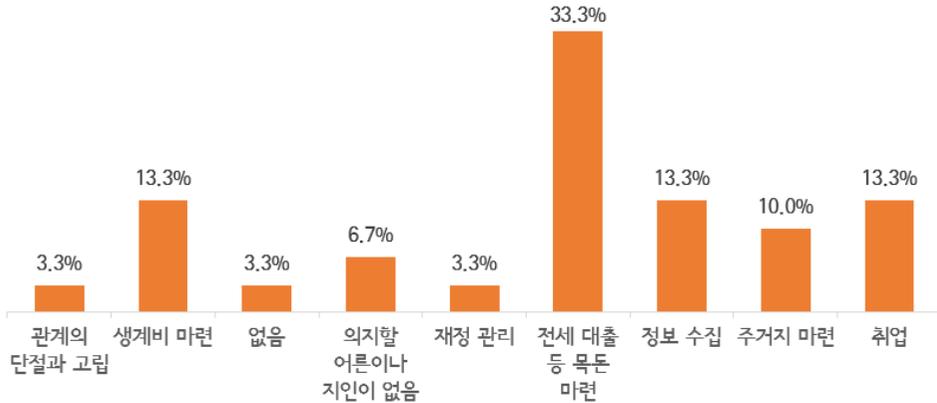
[그림 III-44]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 및 취업 시 우선순위

자립준비청년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나 지인은 4.23명으로 타 취약청년 집단에 비해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망에 넓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적 활동 등으로 인해 시간이 없는 것을 46.7%로 가장 다수의 이유로 꼽았으며 비용 부담이 33.0%로 차순으로 나타나, 시간 및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 될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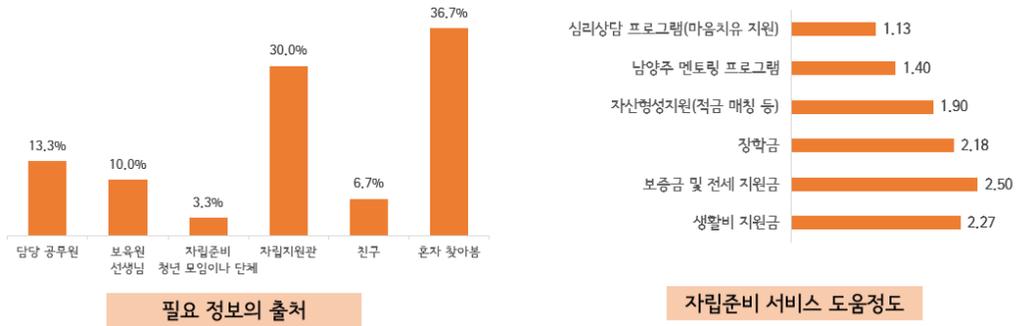
[그림 III-45] 자립준비청년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나 지인 및 만나지 못하는 이유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준비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는 전세 및 대출을 위한 목돈 마련이 33.3%로, 생계비 마련이 13.3%로 높게 나타나 해당 과정에서의 경제적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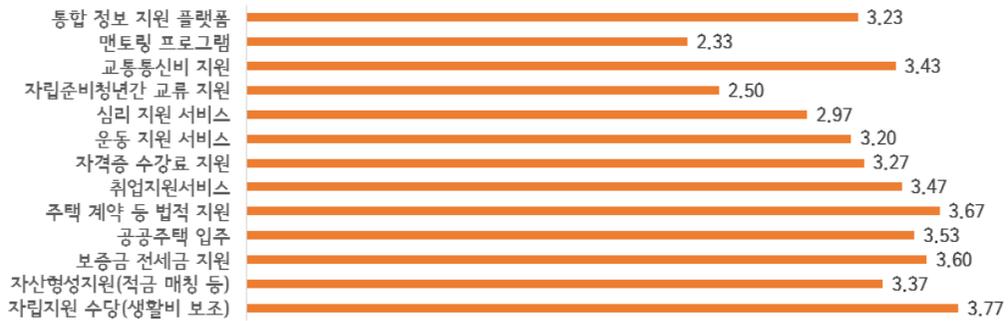
[그림 III-46]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확보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혼자 찾았다는 응답이 36.7%로 가장 높아, 취업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 획득에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어 자립지원관이 30.0%, 담당공무원이 13.3%로 제도적 지원에 의한 정보 탐색도 비교적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립과정에서 받은 각 서비스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증금 및 전세지원금이 2.50(4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비 지원금이 2.27, 장학금 2.18등의 순으로 나타나 항목별 예산 지원제도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47] 자립과정에 필요한 정보의 출처 및 자립준비서비스의 도움정도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자립지원 수당(생활비 보조)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 계약 등의 법적 지원이 3.67, 보증금 및 전세금 지원 3.60, 공공주택 입주가 3.53 등의 순으로, 생활 안정 및 주거 환경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예산 및 법적 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멘토링 프로그램(2.33)과 자립준비청년간 교류 지원(2.50) 등의 사회적 관계 지원에 대한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III-48]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3. 고립은둔청년 복지실태 및 요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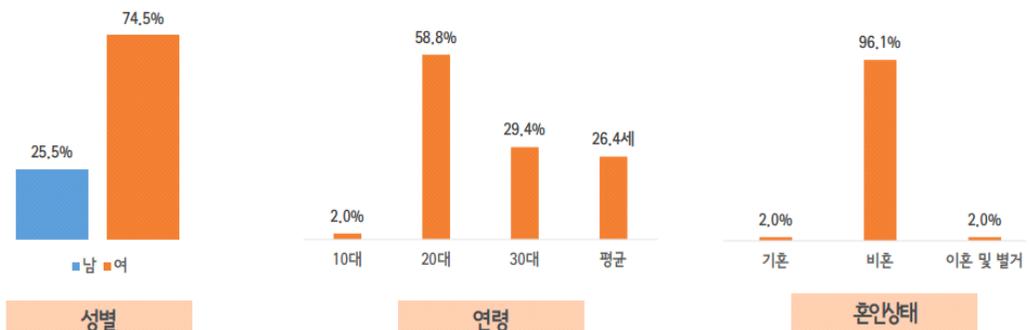
가. 조사 시행

고립은둔청년 대상 설문은 10월 4일~28일까지, 총 25일간 온라인 설문 플랫폼(구글 폼)을 통해 시행되었다.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남양주시 4개 희망케어센터,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표집하였으며, 특히 남양주시 고립은둔청년의 자조 모임인 소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했으며 이를 통한 표집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설문에 최초 진입한 63명 중, 고립은둔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여과질문을 통과하고 설문 최종문항까지 성실히 응답한 5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나. 설문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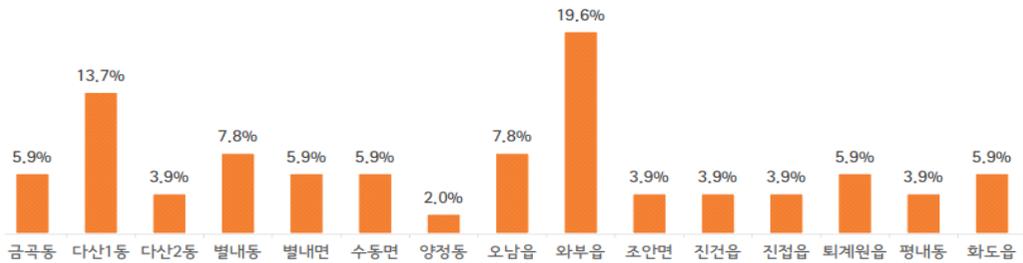
1) 일반현황

고립은둔청년 조사대상자의 74.5%는 여성으로, 이들의 58.8%는 20대, 29.4%는 34세 미만의 30대로 평균 26.4세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연령이 낮은 것과 관련하여 혼인상태 또한 전체 응답자의 다수인 96.1%가 비혼 상태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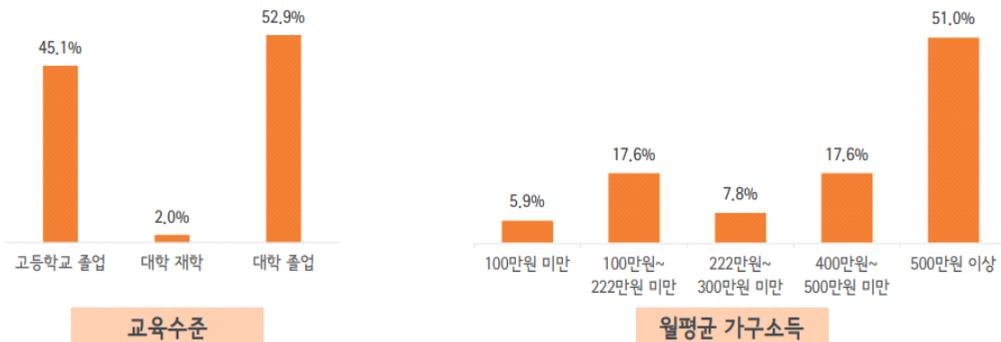
[그림 III-49] 고립은둔청년 응답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응답자의 19.6%는 와부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산1동이 13.7%로 차순으로 나타났으며, 별내동(7.8%), 오남읍(7.8%), 퇴계원읍, 금곡동, 화도읍 등이 각 5.9%로 화부읍을 제외한 여러지역에서 골고루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50] 고립은둔청년 응답자의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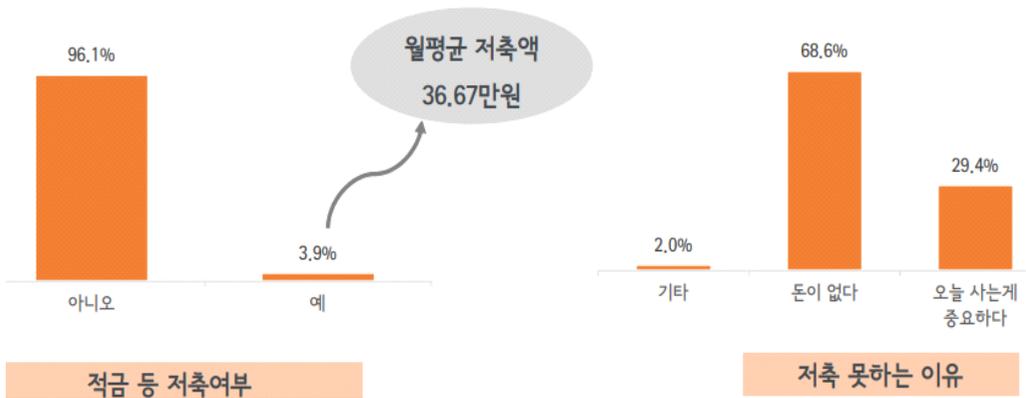
고립은둔청년 응답자의 52.9%가 대학졸업자로 고등교육을 경험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51%인 반면, 중위소득 222만원 미만의 가구도 23.5%로 나타나, 고립은둔청년 가구의 소득분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51] 고립은둔청년 응답자의 교육수준 및 월평균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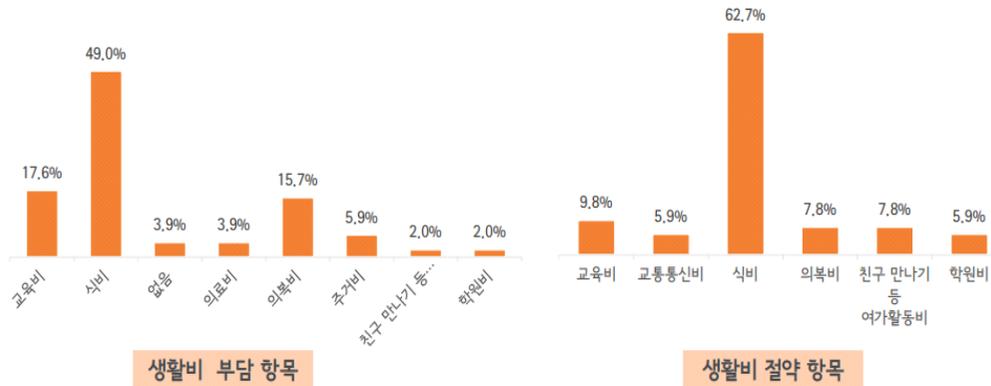
2) 경제상황

고립은둔청년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3.9% 만이 미래를 위해 적금 등의 저축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들의 월평균 저축액은 36.67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축을 하지 않는 96.1%는 해당 이유로 돈 부족(68.6%)을 가장 큰 이유로 답하였으며, 저축 보다 오늘 사는게 중요하다고 답한 이들도 29.4%에 달해, 100% 돈이 없다고 답한 가족돌봄청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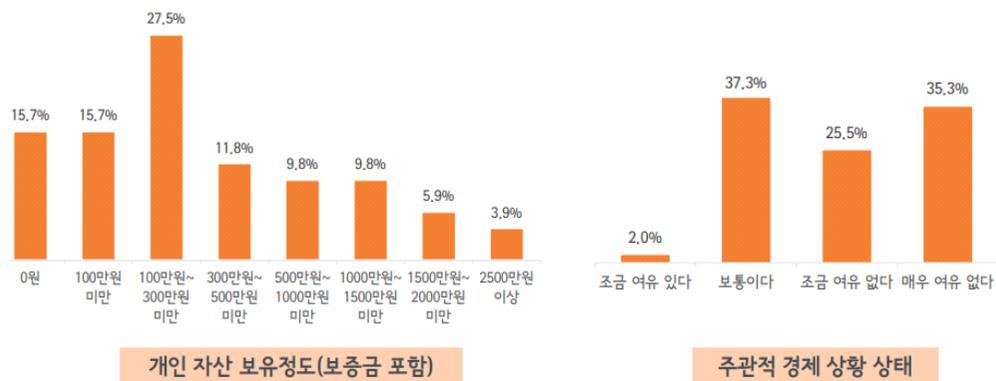
[그림 III-52] 고립은둔청년의 저축여부 및 저축 못하는 이유

한편, 응답한 고립은둔청년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 항목으로는 식비가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 17.6%, 의복비 15.7%, 주거비 5.9%의 순으로 나타나, 식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항목에서도 식비가 62.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외부 활동이 잦지 않은 고립은둔청년의 특성 상, 주거지 내에서의 기본적 생활비인 식비와 관련된 지출이 가장 주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3] 고립은둔청년 응답자의 생활비 부담항목 및 절약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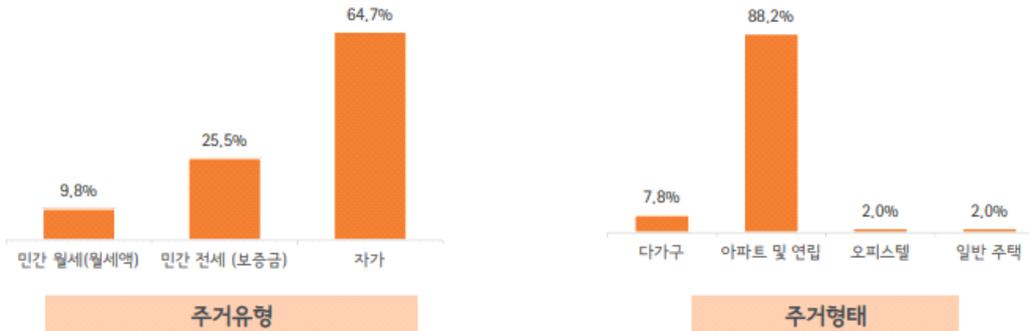
고립은둔청년의 개인자산 보유정도를 살펴본 결과, 27.5%가 100~3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0만원 미만과 보유자산이 전혀 없다고 답한 청년도 각 15.7%로 나타나, 고립은둔청년의 경제상황이 넉넉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여유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0.8%에 달했으며, 그 중 매우 여유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35.3%로 나타나 고립은둔청년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I-54] 고립은둔청년의 개인자산보유정도 및 주관적 경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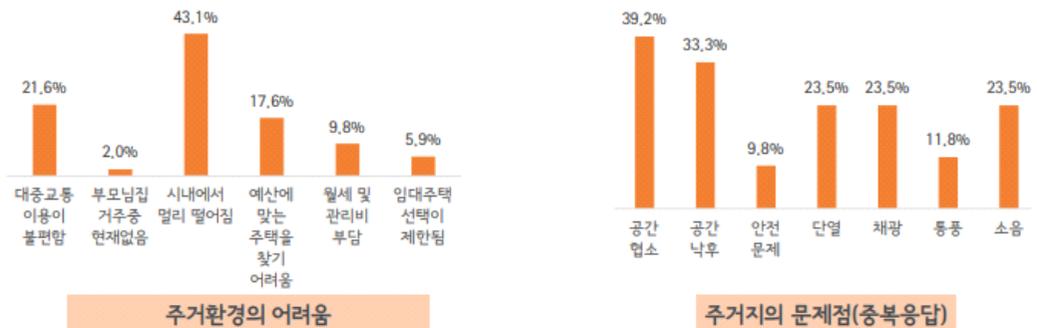
3) 주거환경

고립은둔청년의 주거유형으로는 자가 64.7%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전세와 민간월세가 각각 25.5%, 9.8%로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로는 88.2%인 다수가 아파트 및 연립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I-55] 고립은둔청년의 주거유형 및 형태

현재 주거지 기준, 주거환경의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시내와 거주지의 거리 간극이 43.1%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양주시의 넓은 면적에 비해 신도심과 구도심의 발전 간극이 중첩됨에서 비롯된다. 이어, 거주지 공간의 낙후가 33.3%로 뒤이어 나타났으며, 단열 및 채광, 소음 등의 주거환경 또한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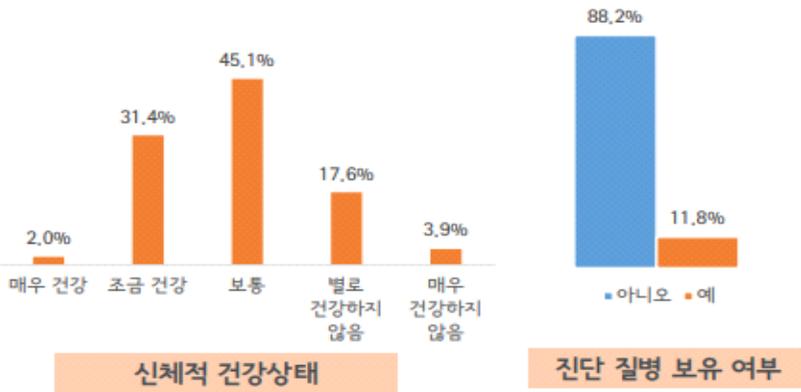


[그림 III-56] 고립은둔청년 주거환경의 어려움 및 주거지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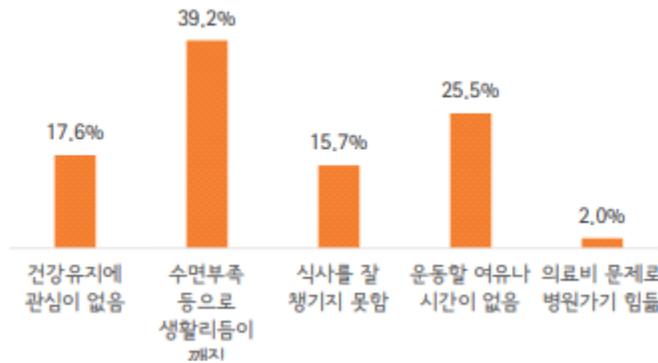
4) 건강상태

○ 신체적 건강

고립은둔청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 상태가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 45.1%이며, 건강하다고 답한 비율은 33.4%, 건강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1.5%이며, 진단 질병을 보유하지 않은 이 또한 전체의 88.2%로 나타나, 신체적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로 수면부족 등으로 인한 생활리듬의 불균형에 전체의 1/3 이상이 응답하여,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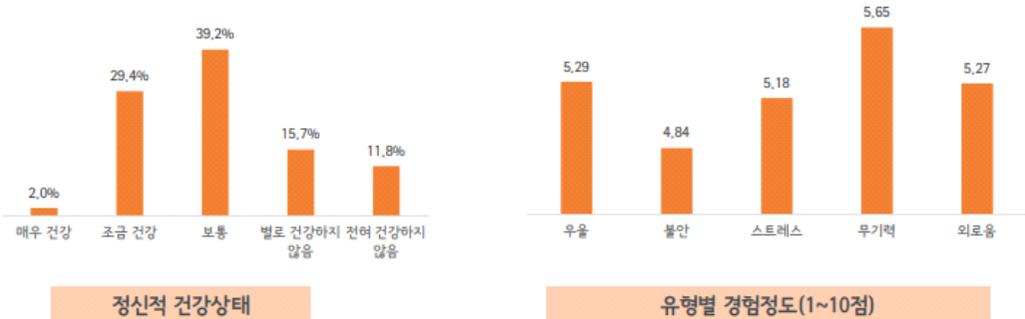
[그림 III-57] 고립은둔청년의 신체적 건강 및 진단질병 보유 여부



[그림 III-58] 고립은둔청년의 신체적 건강 유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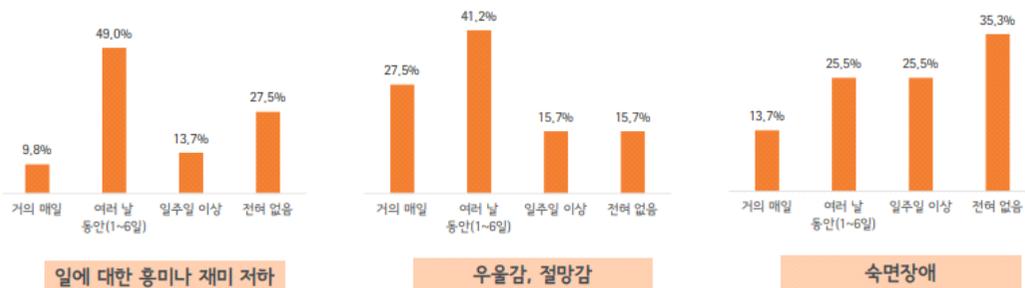
○ 정신적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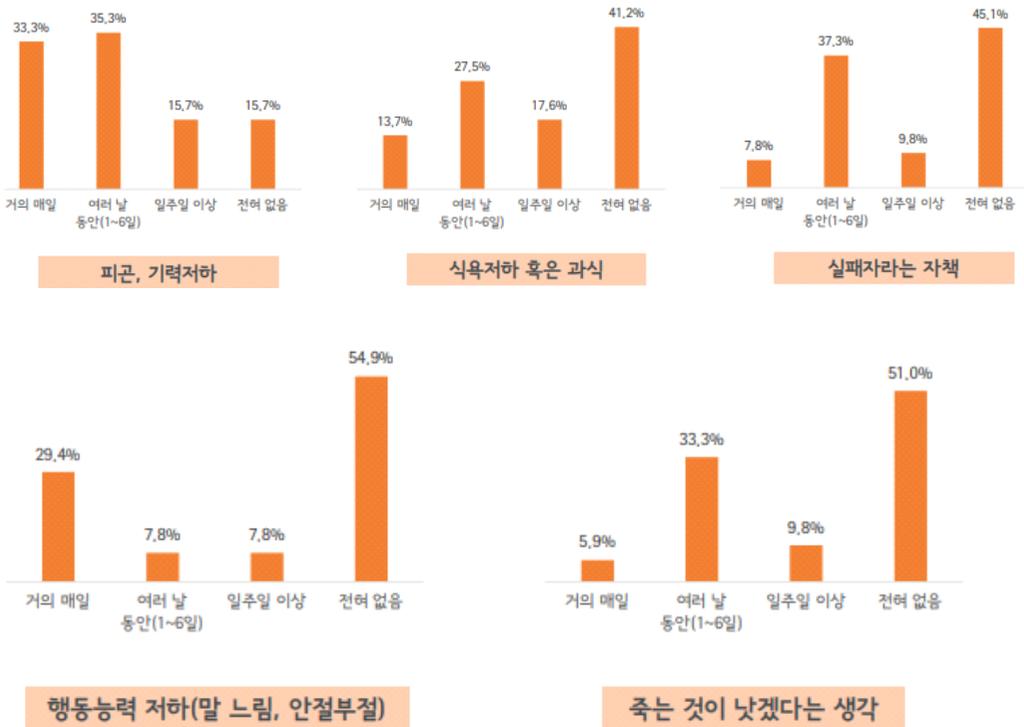
정신적 건강 상태의 경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27.5%로 신체적 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유형별 경험정도를 살펴보면 무기력이 5.65, 우울이 5.29, 외로움 5.27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III-59] 고립은둔청년의 정신적 건강 및 유형별 경험정도

지난 2주간의 구체적인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3.3%가 피곤과 기력저하를 거의 매일 겪는다고 답하였으며, 우울감과 절망감을 거의 매일 겪는다고 답한 이들도 27.5%에 달하고 있어, 고립은둔청년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정신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말을 느리게 하거나, 안절부절 하는 행동능력 저하를 거의 매일 겪는 청년 또한 29.4%에 달해, 정신적인 어려움이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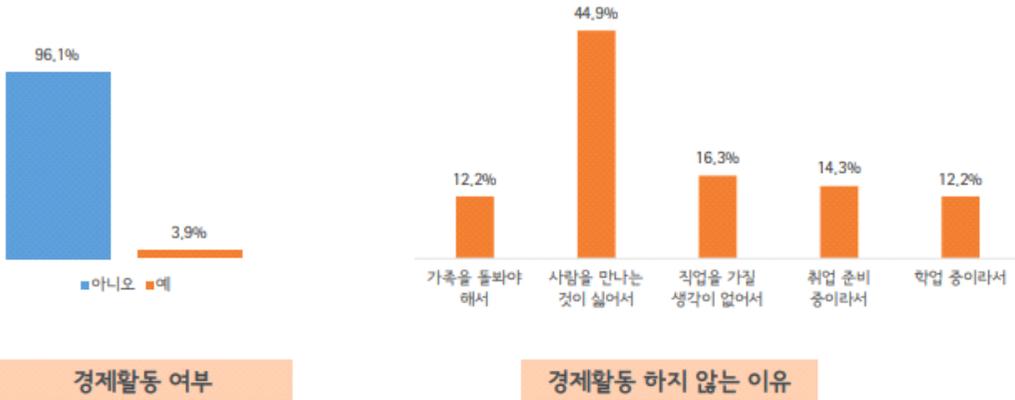




[그림 III-60] 고립은둔청년의 정신적 건강 유형별 경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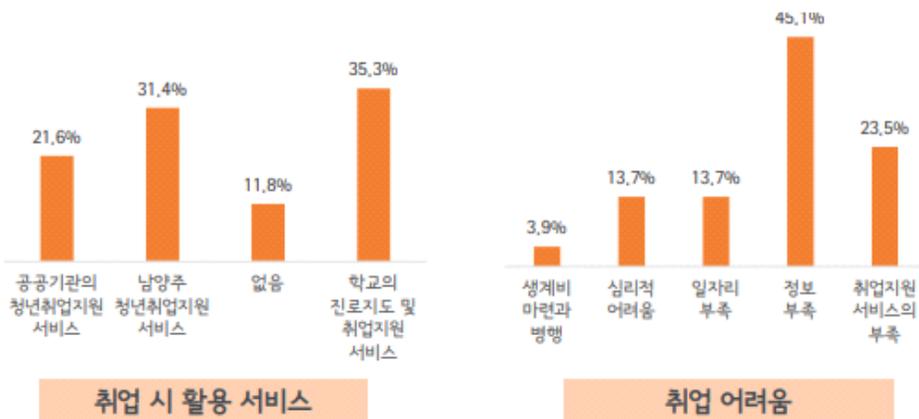
5) 경제활동

고립은둔청년의 단 3.9%만이 소득을 동반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정도가 타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함을 알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44.9%)라고 답해, 고립은둔이라는 생활패턴과 심리적 영향이 경제활동을 막는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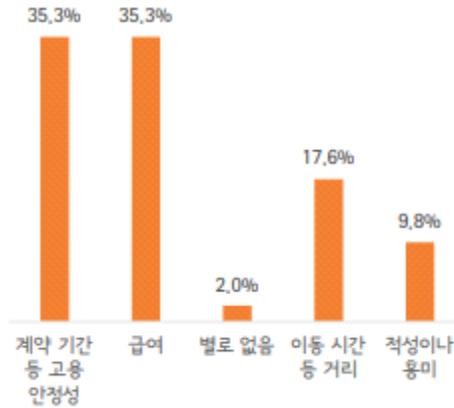
[그림 III-61] 고립은둔청년의 경제활동 여부 및 미활동 이유

취업 시 활용한 서비스로는 학교를 통해 접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35.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남양주 청년취업지원서비스 또한 31.4%로 나타나, 고립은둔청년의 취업 시도에서 제도권을 통한 서비스 지원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 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45.1%)과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23.5%)이 전체의 70%에 가깝게 나타나,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그들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62] 고립은둔청년의 취업 시 활용 서비스 및 취업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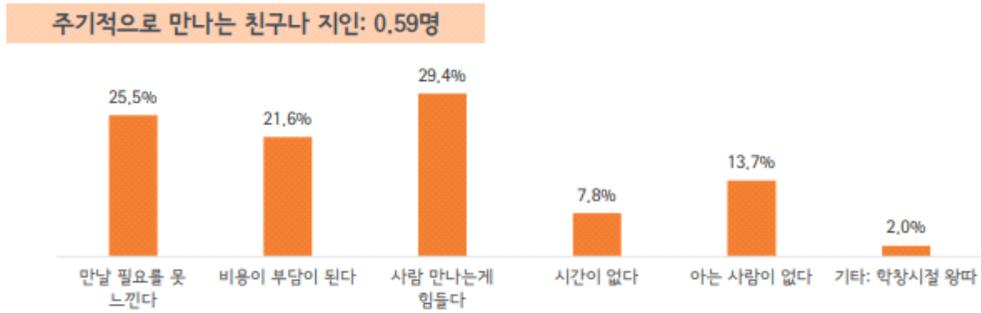
또한, 고립은둔청년이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급여와 고용안정성이 각 35.3%가 가장 높게 나타나,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구안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63] 취업 시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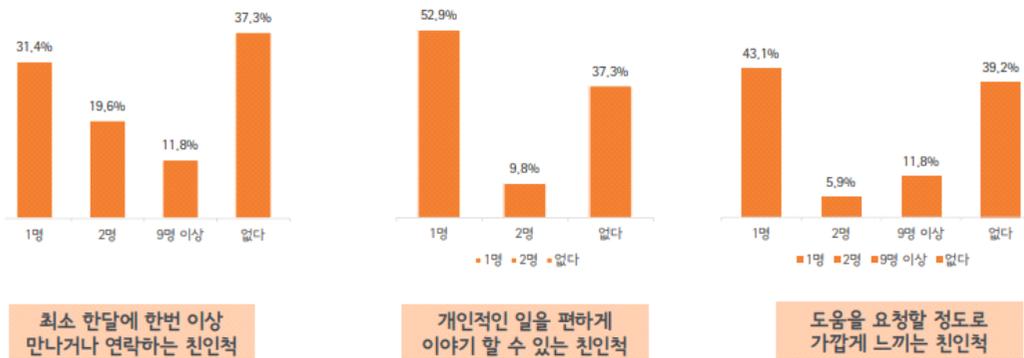
6) 사회적 관계

고립은둔청년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나 지인은 0.59명으로 채 1명이 되지 못한다. 또한, 이들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로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힘들다는 이유가 29.4%로 가장 높고, 사람을 만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가 25.5%로 나타나 타인과의 대면과 의사소통의 장애가 사회적 관계를 제약하고 있음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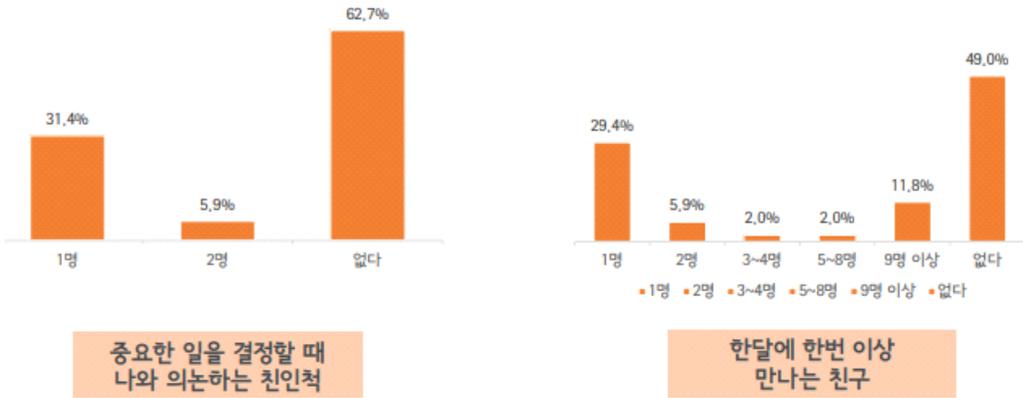


[그림 III-64]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나 지인 수 및 만나지 않는 이유

사회적 관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최소 한달에 한번 이상 만나거나, 개인적인 일을 편하게 이야기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가깝게 느끼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의논하는 친인척이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7.3%, 37.3%, 39.2%. 62.7%로 나타나 친인척과의 친밀한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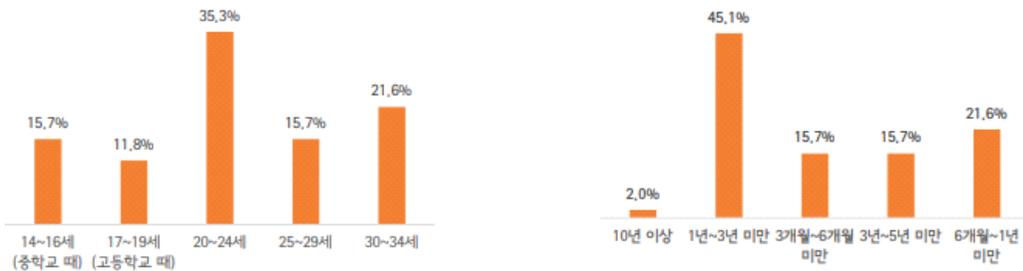


[그림 III-65] 고립은둔청년의 친인척 및 지인과의 관계 정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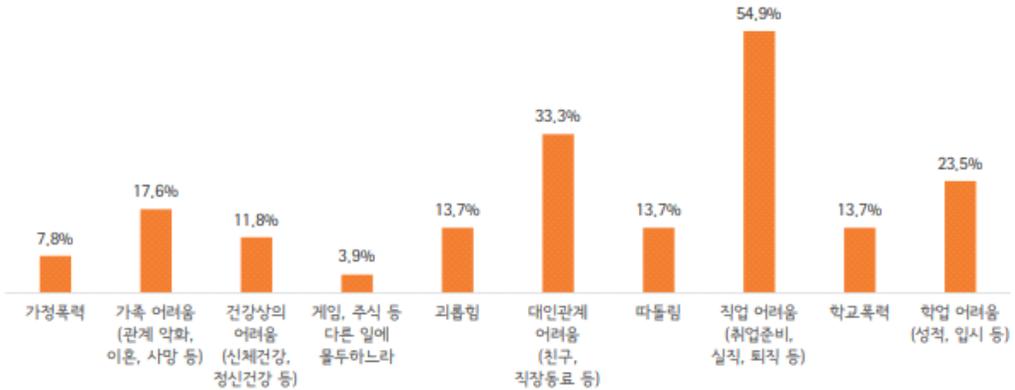
[그림 III-66] 고립은둔청년의 친인척 및 지인과의 관계 정도(2)

한편, 고립은둔경험이 시작된 시기는 20~24세가 전체의 35.3%로 가장 많았고, 30~34세가 21.6%, 25~29세, 14~16세(중학교)가 각 15.7% 순으로 나타나, 성인기 이후 고립은둔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고립은둔기간은 1년~3년이 전체의 45.1%로 나타나 고립은둔 진입 초기인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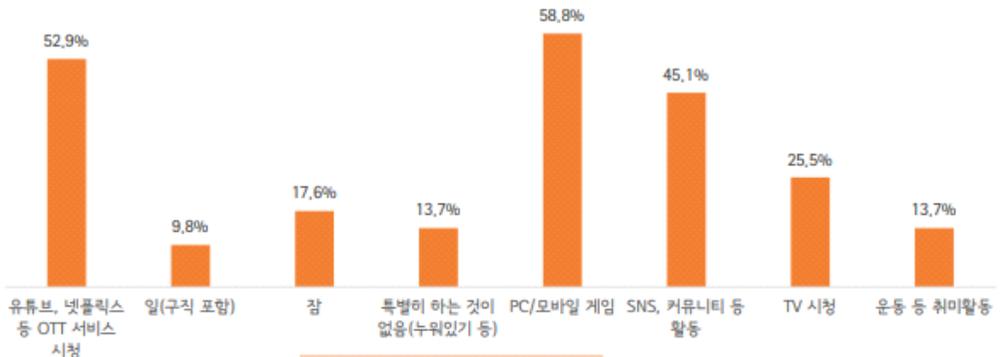
[그림 III-67] 고립은둔청년의 고립은둔 시작 시기 및 기간

고립은둔 이유로는 취업준비와 실직, 퇴직 등의 직업 어려움이 54.9%로 가장 다수를 차지 하고 있어, 취업에의 실패 혹은 어려움이 청년들의 일상생활의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친구나 직장동료 등과의 대인관계 어려움이 33.3%, 학업 어려움(성적 및 입시 등)이 23.5%, 가족 어려움(관계 악화 등)이 17.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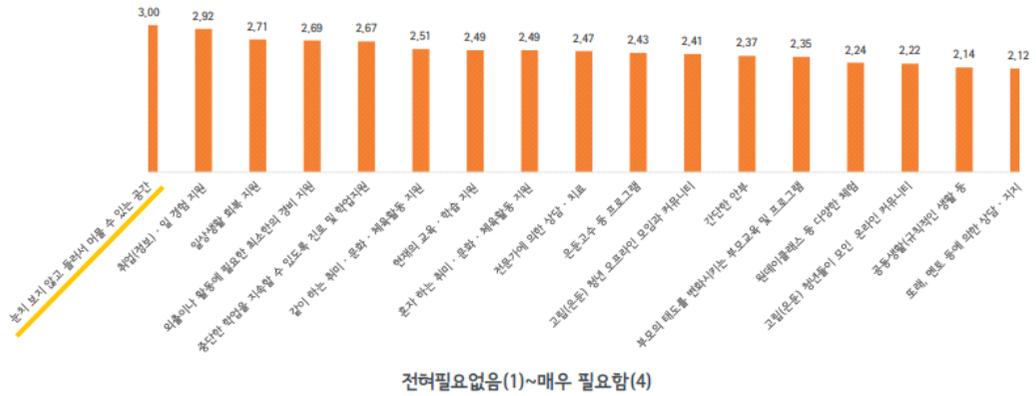
[그림 III-68] 고립은둔청년의 고립은둔 이유

고립은둔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고립은둔 시 무엇을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58.8%가 게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OTT 시청이 52.9%, SNS, 커뮤니티 활동 등이 45.1%로 나타나 고립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의 다수가 미디어 기기 등을 활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69] 고립은둔 시 하는 행동

마지막으로, 고립은둔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3.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취업(정보) 및 일 경험에 대한 지원이 2.92, 일상 생활에 대한 지원이 2.71, 외출이나 일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2.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0] 고립은둔청년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

IV. 취약청년별

심층면접 분석

1. 가족돌봄청년
2. 자립준비청년
3. 고립은둔청년

IV. 취약청년별 심층면접 분석

1. 가족돌봄청년

면접은 시행방식의 효율성 및 참여자의 요구에 맞추어, 2:1 집단면접 방식으로 줌 플랫폼을 이용해 총 90분 동안 진행되었다. 면접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전체 녹음하였으며, 면접 완료 후 연구진이 이를 전사한 후, 참여자에게 사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면접 내용의 신뢰성과 연구참여자로서의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해당 과정으로 심층면접에 참여한 가족돌봄청년들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 가족돌봄청년 심층면접 참가자 일반적 특성

참가자	성별	연령	지역	비고
참여자A	남	21	진접읍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관계 두절, 현재 할머니와 거주, 대학생
참여자B	여	23	별내동	중증질환이 있는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소, 현재 3살 어린 남동생과 거주, 어머니의 간병과 동생의돌봄 담당. 현재 대학생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가족돌봄청년의 탄생과 일상

가족의 구조적 특성은 청년을 이룬 시기에 돌봄의 당사자가 되도록 한다. 조손가정에서 할머니의 돌봄을 자양으로 성장한 청년이 이제 할머니의 일상을 돌보는 주

체로 성장했다. 중간 세대의 부재가 조손가정, 가족돌봄청년으로 이어지는 가족의 생애적 주기를 보인다.

참가자 A: 어릴 때부터 저는 조손 가정으로 컸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있고 지금은 종강을 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같이 할머니랑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의 부재는 돌봄 제공자로서 배우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자녀가 대리 수행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참가자 B: 저는 아버지랑은 어릴 때 헤어져서 안 계시고요. 어머니가 2018년 때 1차 뇌출혈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돌봄을 시작했고 그때는 심하지 않았었는데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에게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일상 생활 지원 등 전 방위적인 돌봄 행위에 가담하고 있었다.

참가자 A: 할머니 이제 담소 나누는 거나 아니면 집안일 할 때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할머니가 어디 나가실 때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같이 나가서

참가자 B: 제가 요양병원 면회를 가서 엄마를 잠시 돌보고 제가 3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도 돌보고 그러고 있어요.

나. 가족 돌봄 청년의 문제

1) 경제적 문제

○ 수급 중단에 대한 두려움

조손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등으로 국가의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현금 급여 혜택이 중단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며, 경제적 자

립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자립으로 수급권을 박탈당하게 될까 염려하는 이중적 태도가 확인되었다.

참가자 A: 제가 조손가정이다 보니까 수급자에 대한 혜택이나 제도를 이제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인이 되면은 수급자나 이런 제도가 거의 끝나잖아요. (중략) 남성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군대 문제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 소득이 잡히면 수급자의 수급 혜택이 좀 끊긴다는 것도 있고

참가자 B: 이제야 나라에 도움을 청하면서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대학생이라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제가 취업을 할 나이가 되면 다 끊기게 될 거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 의료비와 돌봄 비용에 대한 부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무엇보다도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배가했다.

참가자 B: 아무래도 저처럼 가족 중에 중환자가 있으면은 더 배로 드는 것 같아요.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적 필요에 대한 자원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가족돌봄 청년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었다.

참가자 B: 어머니 소모품, 기저귀라든가 패드라든가 이런 패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도 약을 타서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포함이 안 돼요. (중략) 제가 어머니한테 크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 공부와 돈벌이 병행의 난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 돌봄 청년은 학업으로 인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참가자 B: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면 돈 벌 여유도 많이 없고요.

○ 교차적 불평등

가족 돌봄 청년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시간부족, 교육 기회의 제한 등으로 나타나 다양한 차원에서의 불평등이 교차하는 교차 불평등에 처해 있다.

참가자 B : 네 만약에 가난한 친구들은 거기서부터 불평등이 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육에서부터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중략) 가난이라는 게 경제적인 이런 한 정적인 곳에서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생활이나 교육에서 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의무자 족쇄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년 가구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는 가족을 이중 위험에 처하게 하는 재앙과 같았다.

참가자 B: 저희가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이유가 제일 큰 문제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랑 법률적으로 이혼을 아직 안 한 상황이라서 아버지의 소득이 잡히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못 받는 게 너무 많고 아버지가 또 경찰 공무원이세요.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대학교 국가장학금 같은 것도 전혀 못 받고 있고

○ 경제적 어려움과 어른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은 모두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었다.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앞서 생계에 대한 압박은 가족 돌봄 청년의 삶을 옥죄는 잔인한 문제이다.

참가자 A: 첫 번째는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뭔가 이 주위에 의지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어른들이 있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어려워도

참가자 B: 이제 1순위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닐까 싶고요. (중략)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어머니가 쓰러진 거에 대한 슬픔도 너무 컸지만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냐면 책임질

남동생밖에 이제 없는데 애네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지 이런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거를 가장 포괄하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인 것 같고

2) 돌봄의 문제

○ 가장, 돌봄 제공자, 청년 사이의 역할 갈등

가족 돌봄 청년은 취업, 군 입대 등으로 집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 가족원을 적절히 돌볼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다른 청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군입대나 취업조차도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또 다른 걱정과 불안을 야기했다.

참가자 A : 제가 취업을 했을 때 취업을 하면 이제 일정 시간 동안 할머니랑 이제 떨어져 지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할머니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약간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참가자 A :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제가 군대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부족한 돌봄 서비스로 인한 무방비 상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 받는 경우에도 급여량의 제한으로 노인이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게 되는 시간이 많으며 가족돌봄청년은 이 돌봄의 공백을 오롯이 보완해야 하는 당사자였다.

참가자 A : 지금 요양보호제도를 통해서 받고는 있는데 하루에 3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가 제가 어디 갔을 때 그 시간 7시 가령, 7시부터 9시 정도까지 오신다고 치면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시간에는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도움을 그래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시간에는 이제 무방비한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게 필요한 실정이기도 해요

3) 취업 문제

○ 돌봄에 발이 묶임

취업 준비를 위한 스펙 쌓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소득 활동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 데 대부분을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는 것조차 어려웠다.

참가자 B : 일단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이 계속 묶이는 것 같아요. (중략)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 묶여 있어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4) 사회적 관계의 문제

○ 계속 신경 쓰이고 집중할 수 없음

가족을 돌보는 일로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가족 돌봄은 청년의 마음과 시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참가자 B: 왜냐면 어디에 나가 있어도 친구들을 만나도 거기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하다 보니까 집중을 할 수 없고 내가 팀한테 민폐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 내 모든 상황을 알고 vs 나 자신만 믿고

가족돌봄 청년의 사회적 관계는 사례마다 차이를 보인다. 조손가정으로 일찍부터 주변이 도움을 받아온 청년은 자신의 처지가 주변에 공개되고 공유된 상태라 친구나 교회 지인 등 도움을 받을 관계가 존재했다. 반면 친척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도움을 받지 못한 청년은 어린 나이부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 왔으며, 이를 모든 가족 돌봄 청년들의 상황으로 일반화 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가자 A: 친구들한테도 이제 물론 그만큼 오래된 친구들이니까 마음을 털어놓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종교도 있고 또 그만큼 거기에 오래 됐으니

까 주위분들이 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한테 상황을 털어놓기도 좀 더 쉽고요.

참가자 A: 이제 어려울 때마다 이제 밥을 못 먹거나 약간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밥값을 대신 내주기도 하고 어려울 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집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참가자 B: 저는 가족도 없고 아까 말했듯이 친구들이랑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자신만 믿고 계속 온 것 같고 (중략) 그래서 친척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의지할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취약계층 청년 친구들이 다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 비공식 자원의 중요성

교회 지인 등 비공식적 자원은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와 제도의 접근을 가능하게 교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참가자 A: 간호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복지나 이런 거에 바삭한 분이니까 그러면 이런 걸 받아보는 게 어떨겠냐 너는 이게 되는 해당되는 사람이고

○ 희망센터, Gate Keeper

희망센터는 가족 돌봄 청년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접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GATE Keeper로 기능했다.

참가자 A: 저는 교회에서 받은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 가지고 후원금이나 아니면 이런 복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쪽에서도 받은 게 되게 많아요.

5) 주거 문제

○ 수급 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주거 상황

주거급여 대상인 경우 보증금 지원 뿐 아니라 임대료도 해결하여 주거에 대한 어

려움이 없었다.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족 돌봄 청년은 주거비를 자력으로 해결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높았다.

참가자 A: 그쪽에서 이제 보증금을 쥐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집을 찾아서 들어가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네네. 보증금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거 이제 그 비용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달달이 수급비나 이런 거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10만 원이나 20만 원씩은 이제 그쪽에 납부하고 있는 상태

프라이버시도 없고, 숨이 탁 막히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원룸에 세 명이 거주하며, 잠도 잘 수 없고 사생활을 가질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참가자 B: 프라이버시 그런 건 아예 없고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괜찮아졌지만 어머니랑 같이 셋이서 살 때는 솔직히 자고 싶을 때 잠도 못 자요. 왜냐면 원룸에 셋이서 같이 있으니까 한 명이 깨어 있어도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는데

참가자 B: 제가 아까는 원룸에서 셋이서 살고 있다 그랬지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같이 살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저희 셋이서 원룸에서 같이 살 때는 진짜 집에 딱 들어오면 숨이 탁 막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 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주거 환경

경제적 한계로 인해 계단이나 단차를 수리하는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

참가자 A: 저희 집이 그래도 2층 있긴 하지만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오르실 때 계단 오르실 때나 이럴 때는 이제 무릎이나 이런 데 안 좋으시니까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고쳐지면 좋겠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6) 건강의 문제

○ 불행은 나에게만, 만성적 자살사고

할머니와 조손가정으로 살게 되기까지 평범하지 않은 아동기와 청년기의 과정이 있었고, 가족 돌봄 청년은 상시로 불행하다는 생각, 자살사고에 지배 받고 있었다.

참가자 A: 고등학생 이 정도 되면서 남들은 되게 편한데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죽고 싶기도 했고 이제 성인이 점점 되면서 되게 큰 압박감이 들더라고요.

○ 모든 건 내 책임, 과도한 중압감

가족 돌봄 청년, 조손 가정의 특성 상, 이른 나이부터 가장 아닌 가장의 역할이 요구되고 청년은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무력감마저 갖게 되었다. 소득 활동으로 바쁜 일상은 정신건강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동했다.

참가자 A: 저는 그거 중학생 때부터 되게 초등학교 중학생 이 정도부터 되게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너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성인이 되면 니가 알아서 해야 되고 니가 알아서 모든 거를 케어를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되게 뭔가 하기가 싫었어요.

참가자 B: 정신에 문제가 올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알바를 시작하고 가족의 생계도 책임을 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에 가서 상담을 받을 여유도 없고 지금 나 살기가 너무 급한데 현실이 너무 급한데 상담을 받고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 가도 해결 되지 않는 도돌이표, 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자기 개방의 부담

정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건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높지 않았다. 심리적 상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관론적 입장이 강했으며,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상담이 본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참가자 A: 솔직히 말해서 갈 생각도 잘 안 들어요. 가봤자 어차피 지금 내 상황에서 이게 해결이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정신적인 피로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지금 현실에 제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찌 됐든 정신적 문제는 다시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참가자 B: 일단 가장 큰 생각은 가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커요. 그리고 남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도 되고

다. 필요한 지원

○ 안정적 자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제적 보호의 강화

가장의 역할과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은 생계비 지원 등 사회적 급여의 수급 조건을 완화해 자립이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참가자 A: 연령을 조금 더 높여주시거나 아니면 소득에 대한 기준을 조금만 더 좀 완화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략) 저희 같은 이제 저희가 가장 입장을 해야되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압박감이 더 심하게 들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생각이라거나 이런 게 돼 있어 가지고 무력감이나 압도적인 불안감이나 이런 게 들 수 있거든요.

참가자 B: 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준을 완화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안정적인 자리를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 버팀목이 될 만한 것들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생계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참가자 A: 저는 취직할 때까지 경제적이나 주거나 의료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생활하는 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만한 그런 것들, 기초적인 것 회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참가자 B: 저도 안정적인 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 가족 돌봄 청년의 가장 되기 재정 및 금융 교육

가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은 어린 나이부터 재정 관리, 계약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관련된 정보나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함. 금융 교육, 법률적 조언 등을 제공해 가족 돌봄 청년이 불필요한 희생 없이 주어진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이 필요했다.

참가자 B: 그리고 또 저처럼 고등학생 때 갑자기 과장이 된 경우에는 금융 교육이나 부동산에 대한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집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고 보증금은 뭐고 예금은 뭐고 적금은 뭐고 이런 걸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엉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 포괄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 취업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있으나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사업의 대상자 요건을 완화해 많은 청년이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 포괄성을 높여야 하며, 더불어 수강 가능한 수업의 종류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 B: 저희 나라 고용 제도 중에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신청을 하면 자격증이나 인터넷 강의나 그런 걸 수강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기준이 약간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 최대한 많은 대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을 기대했으며, 지원 대상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참가자 B: 취업 준비를 하는 데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도 지원을 해주시는데 기준을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이라도 마음 몇 시간만이라도 마음이 편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용두사미 서비스,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심

초기의 관심과 달리 서비스 제공 기간이 지속될수록 기관이나 센터의 관심이 떨어지고 명확한 종결 없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험을 했으며, 이는 가족 돌봄 청년의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욕구의 지속적인 변화를 고려해 대상자 지원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참가자 B: 제가 이제 이런 최근에 이런 서비스를 겪어보면서 느꼈던 게 점점 뭔가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참가자 A: 성인이 됐다고 모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사람이라는 게 욕구가 되게 많을 거고 그리고 취약계층이면 당연히 더욱더 그 욕구라던 게 그런 게 더 많을 테니까 그게 이제 아무리 종결이 됐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도움을 점점점점 이제 여기 효력은 약해 그래도 꾸준한 도움을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부족한 홍보, 있는데 없는 제도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가 있음에도 가족 돌봄 청년이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은 제도의 문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동했다.

참가자 A : 좋은 거를 홍보할 수단이 없고 그리고 약간의 제한적인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못 받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홍보할 수단을 조금 더 찾았으면 좋겠고

참가자 A: 일단은 홍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SNS나 이런

데에 이런 법안이 있고 이런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찾아봐라 약간 이런 홍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 제도 밖 사각지대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 발굴

도움 받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등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가족돌봄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 찾아나서기 정책이 요구된다.

참가자 B : 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런 정책이 있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서야 알게 됐거든요. 2018년 때부터 가족들을 부양했지만 올해 들어서 이런 제도들이 있는지 알게 됐고

2. 자립준비청년

심층면접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청년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면접은 참여자의 요구에 맞추어 줌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총 10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은 녹음과 전사, 그리고 사후 확인 등의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하였다.

<표 IV-2> 자립준비청년 심층면접 참가자 일반적 특성

주제	성별	연령	지역	비고
참여자C	여자	27	퇴계원읍	직장인, 보호종료 후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
참여자D	남자	24	진건읍	직장인, 보호종료 후 행복주택에서 홀로 거주 중

심층면접 내용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적 어려움

○ 공공지원으로 인한 안정감

최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공공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립 초기 정착금 뿐만 아니라 수당도 제공하고 있어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았다.

참여자 C : 보호 종료할 때 이제 지원금을 주기는 해요.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수당 말고 또 이제 따로 나오는 게 근데 이제 그 돈이 이제 목적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참여자 D : 충분까지는 아니고 일단 도움은 되기는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적

으로 크게 부족하다까지 느낌은 받지 않았고요.

○ 약간은 부족한 소득

공공의 소득지원으로 매우 빈곤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소득은 아니었다. 약간은 부족하기 때문 실질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녹록치 않았다.

참가자 C : 조금 약간 어려운 편인 경우가 많은 편인, 많은 것 같아요.

참가자 D :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뭔가 체계적으로 저축을 하거나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는 경우는..(없죠..)

○ 재정관리역량의 부족

자립준비청년들은 모두 재정관리역량의 부족을 호소하였다. 자립정착금이나 수당, 또는 월급이 생겨도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세금, 관리비, 식비, 예비비 등에 대한 지출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전반적으로 재정관리역량이 부족하였다.

참가자 C : 아무래도 이제 퇴소하고 나서 ...(중략)...경제적 그런 게 좀 미흡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써야 된다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하는 추가 정보들이 미흡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막 잘못해서 날리거나 아니면은 가족들한테 뺏기거나 약 간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가자 D : 기본적으로 돈을 가지고는 나왔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지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소비고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한 지식의 부재가 좀 컸고요.

나. 취업의 어려움

○ 충분한 취업준비 여건의 부족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취업을 해야 일상이 유지되는 상황이다보니, 취업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어렵고 이는 낮은 질의 일자리로 연결되었다. 취업준비하는

동안에도 소득을 발생시켜야 하는 상황이 안정된 일자리 추구를 방해하는 요인이었다.

참가자 C : 좀 급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든 알바든 뭐든 해서 일단은 빨리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가자 D : 아르바이트 같은 거에 이제 필수적으로 확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취업 준비 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다. 주거 문제

○ 주거 정보 탐색 및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한 어려움

최근 공공임대주택 제도 이용이 수월해지면서 주거를 확보할 수는 있으나, 복잡한 주거획득과정의 특성을 20대 초반의 청년이 전부 이해하고 스스로 이를 해결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참가자 C : 정보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 보증금 부담

예전보다 보증금 부담이 줄기는 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선택지가 적고, 수도권이나 원하는 주거를 선택하려고 해도 보증금이 적어서 원하는 주거공간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가자 C : 보증금 관련해서는 요즘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이 뛰어나가고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사 및 집기구 마련의 부담

자립지원제도를 통해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은 다소 덜었으나, 주거확보 이후 이사비나 생활을 할 수 있는 집기구 비용이 많이 들어 이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참가자 D : 조금 정책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졌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좀 미흡한 부분들이 일단은 자립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집을 구했을 거고 이제 알맞은 식기류라 든가 침구류라든가 옷이든 가구류든...(중략)..이제 다 비용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 협소한 임대주택

최근 청년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이 많이 지어져서 시설은 괜찮으나, 공간규모가 적어서 생활이 불편하기도 하였다. 1인 가구에게도 공간이 작다고 하였으며, 2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참가자 C : 청년 쪽 전세 임대 아파트는 평수가 다 작아요.

라. 건강 문제

○ 운동과 건강관리 비용 부담

특별히 신체적인 건강문제가 있지는 않았으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소득을 위해 일자리를 빠르게 구하다 보니 저소득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결국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구해야 원하는 소득이 마련되는 상황이었다. 장시간 근로를 함으로써 운동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건강관리 비용이 부담되어 운동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참가자 C : 제가 투잡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그래서 건강이 저는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황 이긴 한데 안 좋아진 이유가 운동을 못해서예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사실 운동이 거의 뒷전이어서 운동에 나가는 돈은 돈 같은 것도 뒷전이고..

○ 야간노동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야간노동이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건강한 생활패턴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이는 피곤, 스트레스, 소진 등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참가자 C : 생활 리듬이 많이 깨져가지고 피로가 더 잘 쌓이고요. 사실 정신적 문제가 제일 커요. 조금 멍해진다던가 번아웃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무력감이 같이 오는 경우 들도 있죠.

마. 사회적 고립

○ 사회적 지지 부족으로 인한 외로움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면 보육원 친구들도 각자의 지역으로 떠나고 생활반경과 패턴이 달라지면서 연락이 줄어들었다. 연락할 친구들도 가족들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사, 취업, 생활비관리 등 다양한 큰 일들을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고, 문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혼자 겪으면서 의지할 어른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서적 지지를 받아야 할 때 누군가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참가자 C :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거의 다 끊기고. 이제 그런데 이제 혼자 책임져야 되는 것들을 겪다 보면 이제 주변에 의지할 어른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참가자 D : 학창시절부터 쪽 쌓아왔던 교우 관계 같은 것들이 주변에 다 없다 보니까 이제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스트레스를 풀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자립준비청년들이 다른 청년들보다 부모님과 떨어져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처해 있는 사람도 많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사람들이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건강에서는 좀 취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비용문제로 인한 단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외부활동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를 줄이거나 단절하는 상황들이 많았다.

참가자 C : 자립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갖고 있다 보니까 못 노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 정보적 지지 수준에 머무르는 공공전달체계

자립지원관, 지자체 공무원, 보육원 선생님이 있지만 이들로 부터는 정보적 지지를 얻을 뿐 정서적 지지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참가자 D : 어느 시설에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지원해 주셨던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이거를 지지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그냥 이제 정보가 필요할 때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 자립준비청년 네트워크의 부족

자립준비청년모임이 있더라도 행사기획에 따라 참여하다보니 막상 청년들끼리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갖기는 어려웠다. 또한 가정위탁형태로 보호를 받았던 청년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더욱 부족하여 자립준비청년끼리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게 제한되었다.

참가자 C :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소가 아니라 이제 위탁 과정이기는 했거든요. 사실상 주변에 자립준비청년을 많이 모르는 이유도 그래서 더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됐고 만나는 경우도 많지 않았어요.

바. 필요한 지원

○ 자립 전 준비 지원

자립 전에 재정관리역량, 미래설계 등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시켜 주기를 원하였다.

참가자 D : 이제 돈을 써본 경험 이제 내가 한정적인 돈을 가지고 혼자서 한 달에 생활해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식비가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지출이... (중략)... 한번 한 달 정도는 살아보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관련 통합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자립준비청년들이 신청주의 한계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

보접근성을 높여주는 게 필요한데, 이를 위해 통합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홈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참가자 C :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막 자립 정보 자립 청년들이나 이제 청년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알려주는 특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정보만 딱 알려주고 대화하지 않는 특방이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사실 저희가 정보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자립을 시작할 때 더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런 도움도 받을 수 있구나.

○ 취업 지원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필요로 하였는데, 취업훈련을 지원할수도 있고, 취업과정(이력서, 자소서 작성, 면접 연습)에 대한 지원도 요구하였다.

참가자 C : 취업지원제도는 이력서나 면접이나 자소서나 이런 쪽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참가자 D : 학원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정책도 괜찮지 않을까.

○ 신체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무료 내지는 저렴한 비용의 문화체육활동 지원이 확대되길 원하였다.

참가자 C : 운동 지원이든 취미 지원이든 이런 쪽이 정신 건강이랑 연관해서 있으면 괜찮겠더라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네트워크 형성 지원

외로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지지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길 원하였다. 이때 사회네트워크는 형식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걸핍기식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동아리 지

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참가자 D : 이런 형식적으로 짜여진 것보다는 좀 활동 중심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크루라든가 동아리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의 있는 모임들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심리정서지원 확대

외로움, 스트레스, 우울 등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리정서지원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았다.

참가자 C : 심리상담 지원은 확실히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참가자 D :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 자산형성지원 확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삶의 희망을 제공하고 실제 자산형성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상기준, 기간, 유지조건 등의 완화를 원하였다.

참가자 C : 확실히 제일 좋았던 거는 저축 지원 받았을 때 돈이 쌓이는 느낌이 있으니 까 왜냐하면 못 모았던 거 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지원 사람들하고도 연결해서 더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 경제적지원 확대

경제적 지원을 통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지는 않으나 일상을 유지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경제적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참가자 C : 제일 큰 건 경제적인 게 큰 것 같아요.

참가자 D : 저도 동일하게 금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고정적인 지출이 조금 줄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 남양주시 교통 편의성 증대

남양주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자립준비청년들은 남양주 시내 교통 편의성이 증대되어 한다고 응답하였다. 시외 이동이 오히려 편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가자 C : 저도 사실 교통 문제가 제일 커가지고.

참가자 D : 남양주시 자체가 이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교통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3. 고립은둔청년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1:1방식으로 줌 플랫폼을 활용하여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면접 진행방식 및 시간대는 참여자들의 편의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고립은둔청년들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3> 고립은둔청년 심층면접 참가자 일반적 특성

참가자	성별	연령	지역	비고
참여자E	남	22	다산1동	기초수급자, 1인가구, 2년 전부터 고립은둔 시작. 대학교 휴학 중, 주 1회 사회복지관 내 아르바이트 시에만 외출
참여자F	여	24	와도읍	부모님과 동거, 1년 전부터 집안에서만 생활. 대졸, 직장생활 경험은 없음.

심층면접 내용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고립은둔청년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

1) 경제적 문제

○ 고립은둔청년의 다양한 경제적 상황 및 인지 정도

앞선 고립은둔청년 대상 사회조사에서 해당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 고립은둔청년의 특성상, 가구소득이 타 취약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나 고립은둔청년 개인으로는 저축을 하거나 이외의 활동에 사용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여유를 가지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층면접 대상 이었던 두 명의 고립은둔청년은 경제적 상황에 차이를 보였다. 참가자E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지원을 받는 1인 가구 청년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참가자F의 경우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자E 역시 물질적으로 충분한 상황은 아니나, 이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고립은둔의 특성 상, 욕구가 크지 않은 만큼 일상 생활 영위에 있어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인지하지는 않고 있었다.

참가자E: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지금 당장은 (부족한 건) 없어요. 물론 부족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뭘 막 돈을 쓰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중략) 사실 고민되진 않아요. 지원금 자체 지금 받는 거랑 이런 거 생각해 보더라도 저는 생각보다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참가자F: 크게 부족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사거나 그러지도 않고. 대체로 부모님이 다 해주시니까.

2) 취업 문제

○ 취업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타 취약계층청년에 비해 취업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면접 대상자인 두 청년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취업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일터에서 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부담감이 무엇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E: 가능한 하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제대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더군다나 지금 몸 상태가 정상적이었다가도갑작스럽게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참가자F: 아직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디서 혼자 하는 일이라면 모를까.

3) 주거 문제

○ 주거 ‘변화’에 대한 거부와 공간에 대한 낮은 관심

집 밖으로의 외출 활동이 거의 없는 고립은둔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은 이들의 일상을 영위하는 물리적 공간 그 자체와 동일시 된다. 그러나 고립은둔 생활을 이어나간 기간 만큼이나 내재화된 무기력과 무관심의 정도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에 대한 낮은 관심과 욕구 미비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주거의 ‘변화’가 자칫 밖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에서 찾은 ‘편안’을 깨는 계기가 될까 두렵기도 하다.

참가자F: 글썄요. 집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차피 제가 쓰는 공간은 많지는 않으니까. 부모님도 특별하게 이사를 해야한다거나하신 건 없으신 거 같아요.

참가자E: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딱히. 웬만하면 전 지금이 좋아요.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가 제일 익숙하고 편안하니까요.

4) 건강 문제

○ ‘혼자’라는 안도감과 불안감

이들에게 내가 머무는 방, 그리고 집은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누군가와 만나지 않고 ‘혼자’ 머무르는 상태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협되지 않는 상황을 오롯이 가지는 ‘안전함’, 곧 안도감으로 다가온다. 혼자라는 상황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참가자F: 이제 1년 쯤 지나니까 편하죠. 오히려 나간다고 생각하면 더 무섭고요. 처음에는 너무 있나 좀 그러긴 했는데,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안전한 느낌이 드니까. 그러다가도 또 불안할 때도 있어요.

참가자E: 제가 이상하죠? 그런데 웬만해선 그래요. 이게 좋아요.

○ 일상화된 무기력과 소극적 태도

이들에게, 남양주 거주 일반 청년들에게 흔히 확인되는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나 취업 지원에 대한 요구(최혜지·김아래미, 2023) 등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표현된다. 무엇을 더 해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극복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 보다 ‘굳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거나, 현 상황을 ‘별수 없다고 그냥 이해하’는 무기력과 소극적인 태도는 면접 내내 두 청년들에게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참가자E: (학업을 계속할 생각은) 딱히 없어요. 대학을 계속 다니던 증단을 하던 해서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크게 도움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취업을 굳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가자E: (교통 불편은) 솔직히 말해서 수도권이니까 별 수 없다고 그냥 이해하고 살아야죠.

○ 운동에 대한 욕구와 필요 미비

이는 운동에 대한 요구와 필요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듯 보인다. 참가자E는 고립은둔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당한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는 없다. ‘아마 거의’ 하지 않을 것이고 ‘전부 하기 싫’다고 표현하며,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 추가적인 운동을 할 의사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참가자F도 마찬가지로, 딱히 무엇을 더 해야 할 의지와 필요를 갖지 않는 생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E: 운동은 거의 안 하는 편이죠. 운동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냥 전부 하기 싫으니까요. (중략) 운동할 만한 곳이 있기는 한데 목적지가 딱히 있는 곳이 아니라서 굳이 운동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참가자F: 크게 몸이 아프거나 하진 않아서 그냥 딱히 해야 할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땐 모르겠지만.

○ 대면 운동, 집단 운동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

더불어, 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와, ‘안’ 이 아닌 ‘밖’ 에서 사람들과 대면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은 이들이 운동이라는 추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동한다. 익숙한 나만의 공간에서 혼자 움직이는 행위 까지가 이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의 범위가 되는 듯 보인다.

참가자E: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또 근육이 그러니까 운동 하다가 또 그러면 좀

참가자F: 나가서 하는 운동은 좀 그래요. 가끔 노래 틀어놓고 혼자 움직이긴 하지만, 같이 뭘 하는 건...

4) 사회적 관계 문제

○ 내가 온전히 이해되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들이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청년들이 만든 공동체가 있다는 추천을 받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의 공간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그곳에서도 오롯이 나를 이해받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서로 다른 고립의 이유와 행동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서 이해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는 다시 고립과 은둔의 상태로 돌아오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참가자E: *(공동체 명)를 우연히 알게 돼서 처음에는 몇 번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엄청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하고, 거기가면 뭔가 제가 되게 잘 어울릴 꺼라고 생각했었나봐요. 비슷한 생각을 할꺼라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들 달라요. 내가 온전히 이해되진 않더라고요.

5) 필요한 지원

○ 근로 시 줄어드는 지원금에 대한 보존 및 보완

고립은둔청년들이 취업 등과 같은 일 경험에 대한 의지와 활동을 재기하기 위해

서는 일을 하고 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기존에 지원받는 소득 보완정책들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저감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소득이 아닌 자립의 역량이 충분히 회복되어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이 중단 혹은 저감되더라도, 향상된 취업 및 직업 역량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로의 복귀(또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요구 하였다.

참가자E: 일을 한다고 해서 금액을 아예 없애버리지말고 상한을 정해서 일하는 기간에 따라서 천천히 줄이는 형식으로 지원금을 주면 좋겠어요.

참가자E: 저 혼자 자립을 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면 좋겠어요.

○ 청년지원 관련 정보의 효과적 홍보 필요: 정보 노출도 향상

심층면접에서 고립은둔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요구한 것 중 일정부분은 이미 중앙정부 및 남양주시 단위에서 시행중 인 것도 확인되었다.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 부족 및 비효율성 등으로 해당 청년들이 필요 정책 및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데 문제를 가진다.

참가자E: 정보의 노출도를 좀 많이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복지 지원 정보, 의료 지원 정보 같은 지원 정보 위주는.

○ 고립은둔에 대한 인식 개선

참가자F는 고립은둔의 상황에 대해 본인의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다른 선택지가 있었지만 현재 집안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은 누구의 강요가 아닌 본인의 의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립은둔이라는 상황을 질병으로 보거나 비정상적으로 보는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한다. 은둔 상황에 놓인 모든 청년들의 상황이 선택인 것은 아니나, 고립 혹은 은둔의 양상을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지하고, 청년 당사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 또한 궁극적으로 고립은둔청년의 상황개선에 긍정적이지 않음을 인지할 필

요가 있다.

참가자F: 우리 가족은 이제 괜찮은데,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해요. 딸 잘 못 키웠다고.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죄송하죠.

○ 현금지원과 이에 대한 관리 교육

고립은둔청년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중 일부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보다 자유로운 소비 및 일상생활을 꾸리려는 청년들의 패턴과 자칫 맞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듯 하다. 사용의 편의성을 확보케 하되, 이에 대한 지출 및 관리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서비스 지원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참가자E: 식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렇게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금전 지원을 하되 이제 기록을 해서 뭘 샀는지 차라리 기록을 해서 금전 지원을 받는 식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V. 취약청년 정책지원방안

1. 집단별 취약성
2. 정책지원방안

V. 취약청년 정책지원방안

1. 집단별 취약성

가. 가족돌봄청년

1) 경제적 결핍

가족돌봄청년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 자원의 결핍이다. 가족돌봄청년 가구는 주로 성인 부모 중 한 사람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족돌봄청년 또한 가족돌봄을 위해 소득 활동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소득이 제한된다. 가족돌봄청년의 약 60%는 경제적으로 전혀 여유가 없었으며, 25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청년은 28%에 불과했다. 약 21%의 가족돌봄청년은 친구를 만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사회적 관계를 포기할 만큼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생계비 지원이나 생필품 등 경제적 지원을 원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2) 불안정한 일자리와 취업 준비의 어려움

가족돌봄청년의 72%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정규직의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청년은 29%에 불과했다. 경제활동 중인 가족돌봄청년의 10%는 가족돌봄이 직장을 찾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밝혔으며,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 중 27%는 가족을 돌보아야 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

고용형태의 불안정성이나 저임금 일자리 등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는 청년 전반

이 경험하는 문제이지만 사회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돌봄청년은 가족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컸다. 이로 인해 일자리 불안정성의 문제가 가족돌봄청년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났다.

3) 취약한 정신건강

사회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가족돌봄청년의 취약성 중 하나는 정신건강 문제이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39%의 가족돌봄청년은 주관적으로 판단한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않았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무기력, 외로움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약 60%는 여러 날 동안 우울과 절망감을 경험했다. 약 20%는 거의 매일이나 여러 날 동안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으며, 심층면접에서도 아동기부터 자살을 생각하고 현재에도 수시로 자살을 생각하는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제한된 사회적 관계

가족돌봄은 가족돌봄청년의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켰다. 가족돌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2.18명에 불과했으며 약 26%의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느라 여유가 없어서 친구나 지인을 만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9%의 가족돌봄청년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할 만큼 가족돌봄청년의 일부는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은 제한적이었으며, 협소한 사회적 관계는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지지를 취약하게 한다.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급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가족돌봄청년의 제한된 사회적 관계와 이로 인한 사회적 지지의 취약성을 잘 드러낸다.

나. 자립준비청년

1)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

자립준비청년은 가족, 친구, 지인, 공공 및 민간 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나 지인은 4.23명으로 타 취약청년 집단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은 넓은 편이나, 정신적 건강상태 중에 외로움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외롭거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때에는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다.

2) 여전히 취약한 경제적 상황

자립준비청년은 타 취약청년에 비해 최근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는 않았으나, 다른 욕구에 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립준비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는 전세 및 대출을 위한 목돈 마련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계비 마련이 13.3%로 높게 나타나 해당 과정에서의 경제적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자립지원 수당(생활비 보조)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자립

자립준비청년은 취업, 주거 등 큰 일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버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관련 정보를 얻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실제로 자립준비청년이 자립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확보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혼자 찾았다는 응답이 36.7%로 가장 높았고, 심층면접에서는 재정관리역량이 부족해 정보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보탐색 이후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

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원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자립지원 수당 다음으로 주택 계약 등 법적 지원이 3.6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 고립은둔청년

1) 일상화된 무기력과 소극적 태도

고립은둔청년의 27.5%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여타 취약청년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무기력(5.65)과 우울감(5.29)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층 면접을 통해서도 삶의 곳곳에서 일상화된 무기력이 확인된다. 이는 중단된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데 심리적 장애로 작동하고 있으며, 건강 회복을 위해 필요한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챙기고, 외부환경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2) 현재의 고립과 이어지는 미래 준비 부족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단 3.9%만이 소득을 동반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타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한 비율로 나타난다. 또한 응답자의 3.9%만이 미래를 위해 적금 등의 저축을 하고 있다고 답하여, 은둔고립에서 비롯된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축소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립은둔 초기 단계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도되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 또한 축적되지 못함에 따라 청년기 이후의 안정된 삶이 위협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고립은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층면접에서 고립은둔청년들은 본인들을 대하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인식에 대해서 구술한다. 학업이나 취업, 혹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고립은둔경험을 당사자의 역량이나 의지 부족, 가족의 무관심 등 미시적 수준에서 평가하는 경향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킨다. 특히, 설문조사를 통해 고립은둔의 이유 중 상당수가 취업의 어려움(54.9%)과 학업의 어려움(23.5%) 등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학교 및 취업 시장에서 겪는 경험을 개인 단위의 실패로 규정하기 보다 사회적인 맥락과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를 요구받게 된다.

2. 지원방안

가. 취약 청년 공동 지원 방안

1) 청년 인프라

가) 남양주시 청년 문화복지 복합 공간

○ 추진배경

심층면접에 의하면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모두 청년지원에 관한 정보를 얻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과 교류하려는 욕구가 있었다. 특히 특별한 목적 없이 편안하게 방문해 시간을 보내거나 남양주시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필요에 따라 공간 내에서 청년을 위한 여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청년창업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등 청년지원을 위한 다양한 센터가 수립되어 있으나 각 센터가 지닌 목적 지향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편안하게 방문해 시간을 보내거나 교류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특히 각 센터가 시 전체에 1개소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심과 구도심 사이의 교통망이 제한된 남양주시의 특성상 물리적 접근성이 매우 낮다.

○ 사업목적 및 개요

청년 문화복지 복합 공간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지닌다. 우선 언제든 편안하게 방문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청년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청년 간 교류의 기회를 마련한다. 둘째, 청년 공간을 이용하는 청년 사이에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관계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한다.

셋째, 마음건강지원, 취업지원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인다. 끝으로 청년 정책을 알리고 청년 정책을 실행한다.

남양주시의 교통망을 고려해 권역을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청년 문화복지 복합 공간을 제공한다. 청년 문화복지 복합 공간은 이용자의 자격이나 특정 행동이 요구되지 않는 편안하고 일상적인 활동 공간으로 조성한다. 공간 내에 남양주시의 청년 지원사업을 위한 다양한 센터나 지소를 입주하게 하나 해당 사업에의 참여는 청년의 선택 사항으로 둔다.

나) 취약 청년 발굴을 위한 시스템 강화

○ 추진배경

사회조사와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남양주 청년은 외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공적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비수급 상황에 처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 복지시스템의 특성상 공적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공적 지원 신청을 위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 공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되기 쉽다. 특히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제한적이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청년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적 지원을 신청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크다. 취약 청년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 청년 지원 정책으로부터 취약 청년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들 청년을 찾기 위한 발굴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 사업목적 및 개요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다양한 취약성을 지닌 청년 사례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남양주시의 체계를 구축한다. 행복e음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은 중앙정부 차원의 발굴 시스템이고 무엇보다 취약 가구를 선별하는데 목적이 있어 청년의 취약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구 구조 등 남양주시가 보유한 행정 자료를 활용하거나, 남양주시 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초기상담 시 가구 내 취약 청년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공통조사 항목으로 포함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취약 청년 발굴을 위한 체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홍보 인프라 강화

○ 추진배경

남양주시 청년이 토로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돌봄에 관한 정부의 복지 서비스와 남양주시의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남양주시 청년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누군가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이나 지원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청년 또한 우선 개선해야 할 점으로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와 효과적인 홍보를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 사업목적 및 개요

홍보 인프라 강화 전략은 남양주시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 청년의 이해도와 인지도를 높여 지원 대상 청년이 공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all in one 홍보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SNS, YouTube, 카카오 채널 등 청년 세대에 익숙한 매체를 활용해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홍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제안한 청년 문화복지 복합 공간이나 주민센터에 홍보 창구를 마련하고, 편의점, 프랜차이즈 카페, 지하철, 버스 정거장 등 청년의 이용이 많은 공간을 홍보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버스 도착 정보를 전달하는 버스 정거장 알림판을 청년 지원 정책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라) 취약 청년 인식개선

○ 추진배경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 청

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취약 청년은 청년에 기대되는 건강함, 생산성, 활동성 등의 고정관념과는 다른 특성을 보임에 따라 취약 청년을 정상적이지 않은 집단으로 낙인화 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시선은 취약 청년의 자기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년 또한 자신을 실패자, 낙오자 등으로 자기낙인화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 사업목적 및 개요

취약 청년을 향한 시선을 개선하여 취약 청년 스스로 자신 인식을 강화하고 취약 청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대중이 청년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취약 청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남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 교육과 인식개선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취약 청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해 취약 청년 또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청년 서비스

가) 자산형성지원

○ 추진배경

사회조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은 자산형성 지원에 대한 명확한 욕구를 보였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저축을 하는 청년은 43%에 불과했으며, 우선되어야 할 지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자립준비 청년은 자산을 마련할 기회조차 없었으며, 가족돌봄청년 또한 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취약해 청년이 가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자산을 형성할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 사업목적 및 개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취약 청년이 교육, 취업 등 인적 자본 증진을 위해 후에 사

용할 수 있는 자산 형성이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취약 청년 중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가정의 청년을 중심으로 청년이 저축한 액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해 자산형성을 촉진한다.

나) 포괄적 취업 지원 사업

○ 추진배경

세 가지 유형의 취약 청년 모두에서 우선 되어야 할 사업 중 하나로 취업 지원을 선택했다. 청년 취업 지원의 중요성에 기초해 남양주시 또한 청년창업보육센터, 일자리카페, 청년취업성공프로젝트, 청년 창업아카데미, 청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청년 6T 산업연계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년 지원 사업은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족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청년은 참여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일반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은 참여자 선정에 주로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족 돌봄이나 자립준비 등의 특성을 대상자 선정 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다.

○ 사업목적 및 개요

포괄적 취업 지원 사업은 청년의 특성을 배려한 취업 지원으로 취약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포괄적 취업 지원 사업은 새로운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지양하며, 남양주시의 청년 지원 사업이 취약 청년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들 청년의 특성을 배려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참여자 선발 시에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 등 특별한 취약성을 지닌 청년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취약 청년의 선발 비율을 별도로 정해 취약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인다.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으로 인해 거주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청년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 강의를 제공하거나 화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의로 지원 등 취약 청년의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금융교육

○ 추진배경

가족돌봄청년이나 자립준비청년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재정 관리, 금융 등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빈약했다. 가족을 돌보고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은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재정적 문제를 상의할 가족이나 지인이 부재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자립준비청년 또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나 독립 한 후에도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재정 관리, 금융 등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립지원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 사업목적 및 개요

금융교육 사업은 취약 청년의 금융 및 재정 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 내에 청년 동행 센터를 설치한 서울시, 청년지갑 트레이닝 센터를 세운 광주시 등을 모델로 하여 남양주시는 청년 문화복지 복합 공간에 청년의 재정 관리와 금융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라) 마음건강지원 사업 확대

○ 추진배경

취약 청년이 공통적으로 드러낸 어려움 중 하나는 정신건강 문제이다. 가족돌봄청년은 돌봄에 대한 과도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자살사고 또한 높았다. 자립지원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또한 외로움, 고립감,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다. 심리적,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소득 활동, 가족돌봄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이 없었다.

○ 사업목적 및 개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마음건강서비

스를 제공하여 청년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는 2023년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 전체에 1개소만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접근성, 공급량 면에서 청년의 마음건강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청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센터를 청년 문화복지 복합 공간에 추가 설치하여 마음건강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가족돌봄이나 소득활동으로 마음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비대면 화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가족돌봄청년

1)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 크레딧

○ 추진배경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며, 교육, 취업 준비, 소득 활동 등의 청년기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 적지 않은 경우 가족 돌봄자로서의 역할은 가족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실질적 가장의 역할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가족돌봄청년은 가족 생계의 문제와 함께 교육, 취업 준비를 위한 충분한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가족돌봄청년의 경제적 문제를 포착해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에게 매월 25만원의 가족돌봄청년수당을 1년 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또한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에게 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 사업목적 및 개요

남양주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수당 사업의 목적은 학업 및 직업 교육, 취업 준

비를 위한 자기돌봄수당을 지급해 가족돌봄청년의 직업 역량 증진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25만원의 자기돌봄 크레딧을 제공해 학업 및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2) 자립기 완충적 생계비 지원

○ 추진배경

가족돌봄청년의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학 졸업으로 학업이 종료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또는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 부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가족돌봄청년은 취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희망하지만 가족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이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가족돌봄을 병행하며 가능한 조건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으나 소득 활동을 통한 수입은 생계급여에서 삭감된다.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구소득이 생계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교육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 부여된다. 가족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의 조건 상 자활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로 가족돌봄청년은 돌봄의 뒷에 간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역량 습득과 취업의 기회를 포기하고 시간제 임시직을 전전하거나 생계급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 처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직업 역량을 습득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소득 활동을 하는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의 일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 사업목적 및 개요

자립기 완충적 생계비 지원 사업은 학업 종료 후 소득 활동을 시작하는 가족돌봄청년이 안정된 소득을 확보할 때까지 생계비의 일부를 보조해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생계급여의 복지 의존을 장기화

하는 것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8세 이상의 가족돌봄청년으로 학업 종료 후 소득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정해진 기간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의 조건은 소득 활동의 안정성과 소득의 수준을 고려해 정하며 소득 활동의 불안정성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대상으로 포섭될 가능성을 높게 한다.

3) 틈새 가족돌봄

○ 추진배경

심층면접에서 가족돌봄청년은 마음 한쪽이 항상 집에서 자신의 돌봄을 기다리는 가족을 향해 있어 가족돌봄의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지인을 만나는 청년의 소소한 일상도 쉽지 않음을 밝혔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공적 돌봄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하루 최대 4시간을 이용하는데 그친다. 따라서 가족돌봄청년이 학교, 직장 등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은 돌봄 공백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가족돌봄청년은 교육, 소득 활동 등 발달 과업을 위한 주요 활동조차 제한하게 된다. 돌봄에 대한 염려 없이 가족돌봄청년이 교육, 소득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시간 동안 공적 지원을 통해 외부 전문가가 가족 돌봄을 대리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 사업목적 및 개요

틈새 가족돌봄 사업은 추가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족돌봄청년의 발달 과업 수행을 위한 사회적 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틈새 가족돌봄 사업은 기존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족돌봄청년의 교육, 취업 준비, 소득 활동으로 가족원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남양주시의 돌봄 자원을 활용해 방문 돌봄을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공적 돌봄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따라 틈새 가족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은 차등 지원한다.

4) 주거환경 개선지원

○ 추진배경

가족돌봄청년의 33%는 주거 공간이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의 물리적 환경은 돌봄 수행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원의 이동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문턱의 여부 및 높이, 문의 개폐 방식, 계단 등은 큰 변수로 작동한다. 욕실 여건, 사계절 온수의 사용 가능성 등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의 위생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가족돌봄청년 가구는 자력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쉽지 않으며, 심층면접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열악한 주거 환경은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삶의 질을 위협한다.

○ 사업목적 및 개요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족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주택 내 돌봄 장애 요소를 제거한다. 방문의 문턱 제거, 높은 욕조 철거, 온수 공급 시설 보강, 보행 보조 손잡이 설치 등 돌봄 활동의 수월성을 높이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의 안전을 높이는 다양한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자립준비청년

1) 자립준비청년 간 지지체계 지원

○ 추진배경

자립준비청년은 최근 관련 지원제도가 확충되면서 주거, 소득, 일자리 등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지는 않았고, 사회적 고립, 외로움 등에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원 퇴소 이후, 이사, 일자리 등 큰 일들을 혼자 해결하면서 겪는 심리적 부담이 컸고, 친구들과의 관계 빈도나 강도가 줄면서 외로움도 상당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이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받으면서 공감받을 수 있

도록 자립준비청년 간의 지지체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사업목적 및 개요

자립준비청년 간 양질의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내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30명 내외로 적기 때문에 그 중에 진정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남양주시 내 자립준비청년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친구의 지역을 제한하지는 않는 게 필요하다. 적은 소득으로 인하여 교류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교류 비용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2) 자립준비청년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

○ 추진배경

자립준비청년의 높은 사회적 지지체계 확보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간 지지체계 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남양주 시민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의 교류 행사가 관심사 중심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주다 보니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심사 중심의 주체적 관계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벼운 정보적 지지를 얻는 관계는 형성되어 있으므로 밀도 있는 인간관계 형성 지원이 필요하다.

○ 사업목적 및 개요

자립준비청년의 동아리활동 지원, 자연스러운 관계를 위한 청년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멘토-멘티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을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사업 확대

○ 추진배경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었지만, 일부 사업은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이용자 욕구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내용 뿐만 아니라 운영방식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자립준비청년의 사업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사업목적 및 개요

자립준비청년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례관리사 양성이 필요하며, 사례관리사 중심으로 일원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정, 계획, 실행, 평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들의 의견이 통합지원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자립준비청년의 참여율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 고립은둔청년

1) 고립은둔 초기 발굴 및 상담 서비스

○ 추진배경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남양주시 고립은둔청년의 상당수는 3년 미만의 고립은둔 초기 단계로 확인된다. 고립은둔 상황이 중장기로 이어질 경우 예측되는 개인적 및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이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기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첫 단추로, 해당 청년들이 고립과 은둔의 상황에 놓이게 된 상황을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개별 사례에 맞게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 체계가 요구된다.

○ 사업목적 및 개요

고립은둔 상황에 놓인 남양주시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각 사례에 맞는 종합적인 상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별 청년이 접근할 수 있는 원스탑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청년의 지역 및 은둔고립 상황에 따라 지역별 희망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남양주시청년마음건강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활용할 수 있다.

2) 고립은둔청년 인식 개선

○ 추진배경

고립은둔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고립은둔을 시작하게 된 맥락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개인적 수준에서의 실패와 역량 부족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학업이나 취업상황에서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주의, 평가주의 중심의 시선이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이 지속되는 한 이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노력은 더 엄격히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개인 혹은 가족의 역량 및 의지 부족이 아닌, 이들이 학교와 취업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취약성을 인정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보다 친화적인 분위기의 형성 및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사업목적 및 개요

남양주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활용하여, 고립은둔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회복의 가능성을 알릴 수 있는 캠페인 및 미디어 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또한, 고립은둔의 시작이 학업 등과 이어짐을 고려할 때,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의 Wee 센터 및 대학 상담/진로센터 등과 연계하여 고립은둔에 대한 특강을 기획하고 확산하는 것 또한 주요한 실천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및 부록

참고문헌

- 김성아.(2022).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김성아.(2021).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세종: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 관계부처합동.(2022).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
- 남양주시.(2023). 2023년 남양주 청년 정책 시행계획(안). 남양주시청.
- 유정원.(2023).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측정도구 개발. 경기도: 경기복지
재단.
- 이상정.(2021).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세
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민상.(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

부록

부록1. 사회조사 설문지

남양주시 청년 복지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복지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양주복지재단 및 서울여자대학교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거주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자 본 설문조사를 시행하오니,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기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응답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 문장까지 성실히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기프티콘(커피 쿠폰)을 발송드리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최종 문항에 반드시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기프티콘은 설문기간 종료 후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 개요]

- 연구명: 남양주시 청년 복지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 과제책임자: 최혜지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 연구내용: 남양주시 청년 특성 분석, 청년 복지정책 욕구 파악
 - 연구대상: 2024년 10월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자료수집 내용: 성별, 나이, 연락처, 설문조사 응답 내용
 - 자료사용 내용: 남양주시 청년 복지정책 인지도 및 욕구 파악 조사
 - 설문방법: 온라인 조사(인터넷, 모바일)
 - 소요시간: 10~15분 이내
- =====

[공통질문]

1. 본 설문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와 수집이용) 및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하여 안내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기프트콘 발송을 위한 연락처 수집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필수 항목: 휴대전화 번호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연구를 위한 목적 달성 후 1개월 이내 폐기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프트콘 제공 동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일반사항>

1. 귀하는 남양주시 어느 동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본 설문은 현재 기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① 오남읍
 ② 와부읍
 ③ 진접읍
 ④ 진건읍

- ⑤ 퇴계원읍
- ⑥ 화도읍
- ⑦ 별내면
- ⑧ 수동면
- ⑨ 조안면
- ⑩ 금곡동
- ⑪ 다산1동
- ⑫ 다산2동
- ⑬ 별내동
- ⑭ 양정동
- ⑮ 평내동
- ⑯ 호평동
- ⑰ 남양주에 거주하지 않음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 ② 여

3. 귀하의 연령(만 나이)은 몇 살입니까?

* 본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만 19세(2005년 10월 생)에서 34세 이하(1989년 10월 생)입니다.

4. 귀하의 교육수준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① 중졸이하
- ② 고등학교 재학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 재학
- ⑤ 대학 졸업

⑥ 대학원 졸업 이상

5. 귀하의 결혼상태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 ① 비혼
 ② 동거
 ③ 기혼
 ④ 이혼 및 별거
 ⑤ 기타:

6.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 모두 V 해주세요.

-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배우자나 동거인
 ⑥ 형제
 ⑦ 조카
 ⑧ 자녀
 ⑨ 기타: _____

<경제상황>

1.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22만원 미만
 ③ 222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2. 귀하는 다음 중 어떤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십니까?

- ① 식비
- ② 의복비
- ③ 의료비
- ④ 주거비
- ⑤ 교육비
- ⑥ 학원비
- ⑦ 교통통신비
- ⑧ 친구 만나기 등 여가활동비
- ⑨ 기타: _____

3. 생활비가 여유롭지 않을 때 어떤 비용을 가장 먼저 줄이려고 하십니까?

- ① 식비
- ② 의복비
- ③ 의료비
- ④ 주거비
- ⑤ 교육비
- ⑥ 학원비
- ⑦ 교통통신비
- ⑧ 친구 만나기 등 여가활동비
- ⑨ 기타: _____

4. 귀하는 저축이나 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개인 자산을 갖고 계십니까?

- ① 0원
- ② 100만원 미만
- ③ 100만원~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500만원 미만
- ⑤ 500만원~1000만원 미만

- ⑥ 1000만원~1500만원 미만
 ⑦ 1500만원~2000만원 미만
 ⑧ 2500만원 이상

5. 귀하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거나 또는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여유 있다	←	보통이다	→	전혀 여유 없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6. 매달 저축이나 적금 등을 넣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7. 매달 저축이나 적금을 넣지 않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돈이 없다
 ② 오늘 사는게 중요하다
 ③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④ 기타: _____

<주거>

1. 귀하의 주거 유형은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① 자가
 ② 민간 전세 (보증금)
 ③ 민간 월세(월세액)
 ④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⑤ 행복주택/청년주택
 ⑥ 기타: _____

2. 귀하의 주거 형태는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① 일반 주택
- ② 아파트 및 연립
- ③ 다가구
- ④ 오피스텔
- ⑤ 비주택(고시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 ⑥ 기타: _____

3. 주거에 관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임대주택 선택이 제한됨
- ② 시내에서 멀리 떨어짐
- ③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함
- ④ 예산에 맞는 주택을 찾기 어려움
- ⑤ 월세 및 관리비 부담
- ⑥ 기타: _____

**4. 현재 거주하는 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당하는 것에 모두 v표 해주
세요.**

- ① 공간 협소
- ② 공간 낙후
- ③ 안전 문제
- ④ 단열
- ⑤ 채광
- ⑥ 통풍
- ⑦ 소음
- ⑧ 기타: _____

<취업>

1. 귀하는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주식투자, 코인투자 등의 금융소득 활동은 제외

- ① 예
- ② 아니오

2.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① 단순노무
- ② 서비스 및 판매
- ③ 사무직
- ④ 단순 기술
- ⑤ 전문기술 기능
- ⑥ 전문직
- ⑦ 전문관리관료
- ⑧ 기타:

3. 귀하의 고용 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 ① 정규직
- ② 계약직
- ③ 아르바이트
- ④ 기타:

4. 직업활동으로 인한 귀하(개인)의 월 평균 총소득은 모두 얼마입니까?

- ① 50만원 미만
- ② 50만원 ~100만원 미만
- ③ 100만원~150만원 미만
- ④ 150만원~200만원 미만
- ⑤ 200만원~250만원 미만
- ⑥ 250만원~300만원 미만
- ⑦ 300만원 이상

5. 취업을 위한 정보는 주로 어떻게 구했습니까?

- ③ 인터넷 검색
- ④ 공공기관에서의 취업관련 안내 및 홍보문자
- ⑤ 친구 및 지인들과의 단톡방
- ⑥ 기타:

6.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친구
- ② 가족
- ③ 학교 선생님
- ④ 기타 지인
- ⑤ 공공기관 담당자
- ⑥ 자립지원관
- ⑦ 없음
- ⑧ 기타:

7.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 ① 남양주시에 위치
- ② 구리시에 위치
- ③ 그 외 경기도에 위치
- ④ 서울시에 위치
- ⑤ 경기, 서울 이외 기타지역에 위치

8. 취업을 위해 이용한 지원이나 서비스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학교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
- ② 남양주 청년취업지원 서비스
- ③ 공공기관의 청년취업지원 서비스
- ④ 기타:

9. 취업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정보 부족
- ②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
- ③ 가족 돌봄 등으로 시간 부족
- ④ 생계비 마련과 병행
- ⑤ 자격증 준비 등을 위한 비용 부족
- ⑥ 일자리 부족
- ⑦ 심리적 어려움
- ⑧ 기타:

10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급여
- ② 이동 시간 등 거리
- ③ 계약 기간 등 고용 안정성
- ④ 적성이나 흥미
- ⑤ 기타:

<건강>

1. 귀하의 신체적 건강은 어떤 상태입니까?

매우 건강하다	←	보통이다	→	전혀 건강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2. 귀하는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의료비 문제로 병원가기 힘들

- ② 수면부족 등으로 생활리듬이 깨짐
- ③ 운동할 여유나 시간이 없음
- ④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함
- ⑤ 음주
- ⑥ 흡연
- ⑦ 건강유지에 관심이 없음
- ⑧ 기타: _____

4. 귀하의 정신적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건강하다	←	보통이다	→	전혀 건강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5. 귀하가 갖고 있는 정신적 어려움에 모두 v표 해주세요

	매우 적음		← 보통 →						매우 많음	
	1	2	3	4	5	6	7	8	9	10
우울	<input type="checkbox"/>									
불안	<input type="checkbox"/>									
스트레스	<input type="checkbox"/>									
무기력	<input type="checkbox"/>									
외로움	<input type="checkbox"/>									

6. 지난 2주 동안 아래의 증상들을 얼마나 자주 겪으셨습니까

	전혀없음	여러날 동안 (1~6일)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2	3	4
•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식욕 저하 혹은 과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과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면에서건 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관계>

1.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나 지인은 몇 명 정도입니까?

_____명

2. 친구나 지인을 만나지 않는(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부담이 된다
 ② 시간이 없다
 ③ 아는 사람이 없다
 ④ 사람 만나는데 힘들다
 ⑤ 만날 필요를 못 느낀다
 ⑥ 가족을 돌보느라 여유가 없다
 ⑦ 기타: _____

[가족돌봄청년 대상 질문]

<여과질문>

* 귀하의 자녀 이외,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 중 누군가를 돌보는데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을 사용하십니까?

예, 아니오

1. 가족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는 신변처리(화장실 사용, 세수, 머리 감기 등)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어머니
- ② 아버지
- ③ 할아버지
- ④ 할머니
- ⑤ 가족돌봄아동
- ⑥ 가족돌봄아동의 형제자매
- ⑦ 그 외 가족원

2.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내가 한 일이나 행동을 모두 V표기해 주세요.

- ① 가사(설거지, 빨래, 식사 준비 등)
- ② 간병
- ③ 병원동행
- ④ 형제자매돌봄
- ⑤ 생활비 충당을 위한 근로
- ⑥ 기타: _____

3. 최근 한 달 동안 가족을 위해 아래 일들은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나요

	잘모름	비해당 또는 전혀하지 않음	보조적 역할 수행 (성인가족원이 주로 수행)	주된 역할 (청년이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수행)
	1	2	3	4
• 성인 가족원 수발 또는 돌봄 (식사 챙기기, 샤워, 머리 감기 등 위생활동 보조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형제자매 돌봄 (어린 동생이나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의 식사 챙기기, 등하교 돕기, 숙제 봐주기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사 (설거지, 빨래, 식사 준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족원의 병원, 치료센터 방문 시 동행(외출 보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세수 식사보조, 목욕 등 신변처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5.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다음 중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서비스는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③ 가사간병서비스
④ 장애인활동지원
⑤ 간호간병통합지원서비스
⑥ 통합사례관리
⑦ 기타: _____

6. 나(돌봄청년)를 위해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서비스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수당
- ② 학습지원
- ③ 멘토링
- ④ 진로 및 취업지원
- ⑤ 심리상담
- ⑥ 기타: _____

7. 우리 가족에게 누군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싶나요?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요함	필요함
	1	2	3	4
• 혼자서는 샤워, 식사 등을 잘하지 못하는 가족을 누군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족 중 아픈 사람을 보살펴 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혈압 등 건강상태 확인, 병원동행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가사(청소, 설거지, 반찬 지원 등)를 도와주면 좋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누군가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이나 지원에 대해 알려주면 좋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응급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우리 가족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가·문화생활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가족캠핑, 가족체육활동, 가족여행 등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생계비 지원이나 생필품(쌀, 통조림, 기저귀 등) 등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나(돌봄청년)를 위한 현금지원, 학습지원, 진로상담을 받고 싶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어떤 도움도 받고 싶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움이나 받기를 원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9.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족돌봄청년이나 그 가족을 위해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를 요청한 경험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자립준비청년 대상 질문]

1. 자립 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③ 생계비 마련
- ④ 전세 대출 등 목돈 마련
- ⑤ 재정 관리
- ⑥ 주거지 마련
- ⑦ 취업
- ⑧ 정보 수집
- ⑨ 의지할 어른이나 지인이 없음
- ⑩ 관계의 단절과 고립
- ⑪ 기타:

2. 귀하는 자립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어떻게 구했습니까?

- ⑫ 혼자 찾아봄
- ⑬ 자립지원관
- ⑭ 담당 공무원
- ⑮ 보육원 선생님
- ⑯ 친구
- ⑰ 자립준비청년 모임이나 단체

3. 자립지원관 제도를 이용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개월 단위로 기입해주세요(예: 17개월)

4. 자립지원관 제도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모두 V 해주세요.

- ① 정보를 제공 받음
- ② 심리적 지지를 받음

- ③ 재정 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음
 ④ 서류 준비나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음
 ⑤ 기타:

5. 자립지원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써 주세요.

6. 다음의 서비스가 자립을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용한 적 없음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조금 도움 됨	매우 도움 안됨
• 자립지원 수당	<input type="checkbox"/>				
• 생활비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 보증금 및 전세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 자산형성지원(적금 매칭 등)	<input type="checkbox"/>				
• 남양주 멘토링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 심리상담 프로그램(마음치유 지원)	<input type="checkbox"/>				

7. 다음의 서비스가 자립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
• 재정관리 교육 및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자립지원 수당(생활비 보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자산형성지원(적금 매칭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보증금 전세금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공공주택 입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주택 계약 등 법적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취업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자격증 수강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운동 지원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심리 지원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자립준비청년간 교류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교통통신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멘토링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자립 준비에 대한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보호 종료 2년 이전부터
- ② 보호 종료 1년 이전부터
- ③ 보호 종료 6개월 이전부터
- ④ 보호 종료 시점부터

9. 자립 준비에 대한 지원은 언제까지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특정 연령까지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 "기타" 에 해당 연령을 기입해주세요

- ① 보호 종료 시점까지
- ② 보호 종료 6개월 후까지
- ③ 보호 종료 1년 후까지
- ④ 보호 종료 2년 후까지
- ⑤ 보호 종료 5년 후까지
- ⑥ 취업 시까지
- ⑦ 취업 후 1년까지
- ⑧ 기타:

[고립은둔청년 대상 질문]

<여과질문>

○ 동거 가족이나 지원 기관(청년 공동체, 담당 사회복지사 등) 외에,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교류는 전화, 우편, 대면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1. 다음 중 귀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내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② 내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⑥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⑦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⑧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2. 다음은 귀하의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아래 질문에서 맞는 것을 체크해주세요.

	없다	1명	2명	3~4명	5~8명	9명 이상
•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가족 및 친인척은 몇 명입니까?						
• 귀하가 개인적인 일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가족 및 친인척은 몇 명						

입니까?						
• 귀하가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가깝게 느끼는 가족 및 친인척은 몇 명 입니까?						
• 귀하의 가족 및 친인척 중 한 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분은 귀하와 얼마나 자주 의논하십니까?						
•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 귀하가 개인적인 일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 귀하가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가깝게 느끼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 귀하의 친구 중 한 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분은 귀하와 얼마나 자주 의논하십니까?						

3. 귀하는 언제 처음으로 고립(은둔)을 경험하기 시작했나요?

- ① 13세 이하(초등학교 때)
- ② 14~16세(중학교 때)
- ③ 17~19세(고등학교 때)
- ④ 20~24세
- ⑤ 25~29세
- ⑥ 30~34세

4. 귀하는 어떤 이유로 고립(은둔)을 경험하게 되었나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기해 주세요

- ① 가족 어려움(관계 악화, 이혼, 사망 등)
- ② 학업 어려움(성적, 입시 등)
- ③ 직업 어려움(취업준비, 실직, 퇴직 등)
- ④ 가정폭력
- ⑤ 학교폭력, 따돌림, 괴롭힘
- ⑥ 대인관계 어려움(친구, 직장동료 등)
- ⑦ 건강상의 어려움(신체건강, 정신건강 등)
- ⑧ 게임, 주식 등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 ⑨ 기타:

5. 고립(은둔)을 경험하던 기간에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한 일이나 행동을 모두 V 표기해 주세요.

- ① TV 시청
- ② PC/모바일 게임
- ③ SNS, 커뮤니티 등 활동
- ④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시청
- ⑤ 일(구직 포함)
- ⑥ 운동 등 취미활동
- ⑦ 잠
- ⑧ 특별히 하는 것이 없음(누워있기 등)
- ⑨ 기타:

6. 귀하에게 다음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
•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일상생활 회복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같이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전문가에 의한 상담·치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또래, 멘토 등에 의한 상담·지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현재의 교육·학습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취업(정보)·일 경험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중단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진로 및 학업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공동생활(규칙적인 생활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외출이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원데이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고립(은둔) 청년 오프라인 모임과 커뮤니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고립(은둔) 청년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간단한 안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은둔고수 등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부모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부모교육 및 프 로그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가족이나 친척이 있나요?

	있다	없다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친구가 있나요?

	있다	없다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웃, 직장동료, 기관 등이 있나요?

	있다	없다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고립(은둔) 생활을 한지 총 얼마나 되었나요?

- ① 3개월 미만
- ② 3개월~6개월 미만
- ③ 6개월~1년 미만
- ④ 1년~3년 미만
- ⑤ 3년~5년 미만
- ⑥ 5년~10년 미만
- ⑦ 10년 이상

남양주시 취약계층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연구

발행일 2024년 12월 15일

발행처 남양주시복지재단

주소 (12248)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
로 7 (다산행정복지센터 내 1층)

전화 031) 524-9834~7

홈페이지 <https://www.nyjwf.or.kr>

전자우편 nyj-welfare@daum.net